

**2021학년도 수능대비 강의노트**

# **나올 것만 정리하는 EBS선별 문법 Final**

---

**국어강사 신한종 (국신T)**

現 SKYEDU 국어 인터넷강의

現 강남하이퍼 본원 출강

現 대치 다원교육, 대치이강 출강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출강

---

**SKYEDU**

# #1. 음운변동

## [음운이란?]

: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단위.

- 분절음운
- 비분절음운

## [음운 변동, 표준발음규정]

- 발음할 때의 음운현상을 규정한 규칙

## [음운 변동의 출제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파악하기
교체	1. 교체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2. 동화	자음동화(비음화, 유음화), 모음동화
3. 탈락		자음탈락(ㅎ, ㅅ, ㄹ탈락), 모음탈락(ㅡ, ㅓ, 동음탈락)
4. 축약		거센소리되기(자음축약), 모음축약
5. 첨가		사잇소리 현상, ㄴ첨가

# [꼭 정리해야 할 EBS문항]

## [문제1]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잘못된 발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표준 발음법 제5항 ‘ㅈ ㅊ ㅋ ㄱ ㄴ ㄷ ㅌ ㄴ ㄹ’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쯤, 처’는 [저, 쯤,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례’ 이외의 ‘ㄱ’는 [ㄱ]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는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 ‘다쳐’를 [다처]로 발음했다.
- ㉡ ‘지혜’를 [지혜]로 발음했다.
- ㉢ ‘차례’를 [차례]로 발음했다.
- ㉣ ‘희망’을 [희망]으로 발음했다.
- ㉤ ‘의견’을 [이견]으로 발음했다.
- ㉥ ‘동생의’를 [동생에]로 발음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표준어 규정의 주요 내용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차례’의 ‘례’는 ‘다만 2’에서 언급하는 ‘예, 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례]로 발음하면 안 된다. ㉣ ‘의견’은 단어의 첫음절에 ‘의’가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다만 4’에서 언급하는 ‘의’를 [의]로 발음함도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다쳐’의 ‘쳐’는 ‘다만 1’에서 언급하는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쳐’이기 때문에 [처]로 발음한다.
- ㉡ ‘지혜’는 ‘다만 2’에서 언급하는 ‘예, 례’ 이외의 ‘ㄱ’가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혜] 또는 [지혜]로 발음한다.
- ㉣ ‘희망’의 ‘희’는 ‘다만 3’에서 언급하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에서 ‘ㄴ’이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히]로 발음한다.
- ㉥ ‘동생의’의 ‘의’는 ‘다만 4’에서 언급하는 조사 ‘의’이기 때문에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문제2]**

〈보기〉의 [A]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봄’, ‘밤’의 경우 음운 하나의 차이로 인해 뜻이 변별됩니다. 한편 표기는 같지만 소리가 달라 뜻이 변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 도로’와 ‘고가의 시계’의 ‘고가’는 표기는 같지만, 고가(高架)[고가]와 고가(高價)[고까]의 발음이 달라 뜻이 변별됩니다. 각 단어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의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

- ①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에서 ‘바늘’과 ‘하늘’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ㅂ’과 ‘ㅎ’입니다.
- ② ‘나라의 녹을 받는 것을 낙으로 삼다.’에서 ‘녹’과 ‘낙’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ㄴ’과 ‘ㄷ’입니다.
- ③ ‘나는 북소리를 듣고 봉화대에 불을 피웠다.’에서 ‘북’과 ‘불’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ㄱ’과 ‘ㄹ’입니다.
- ④ ‘우리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에서 ‘우리’와 ‘추리’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ㅇ’과 ‘ㅈ’입니다.
- ⑤ ‘잠자리를 잡느라 지쳐서인지 아이들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에서 앞의 ‘잠자리’와 뒤의 ‘잠자리’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ㅈ’과 ‘ㅉ’입니다.

**[정답/모범답안]**

4

**[해설]**

**[유형 이해]**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0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문제 유형으로, 〈보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음운의 개념에 대한 문법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음운의 개념과 관련된 문법 지식의 이해 능력 및 탐구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유형 공략]**

- 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법 지식을 확인하고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 ② 제시된 예를 통해 설명한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③ 선지에 진술된 정보가 〈보기〉의 설명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한다.

**[정답 풀이]**

④ 종성으로 쓰인 ‘ㅇ’은 소릿값이 있는 음운이지만 우리말 초성 자리에 표기된 ‘ㅇ’은 소릿값이 없으므로 음운이 아니다. ‘우리’와 ‘추리’라는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이유는 ‘우’에는 초성이 안 쓰였지만 ‘추’에는 초성 ‘ㅈ’이 쓰였기 때문이다. 즉 자음 ‘ㅇ’과 ‘ㅈ’의 차이 때문이 아니므로 ④는 적절한 예가 아니다.

**[오답풀이]**

- ① ‘바늘’과 ‘하늘’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자음인 ‘ㅂ’과 ‘ㅎ’이므로 적절한 예이다.
- ② ‘녹’과 ‘낙’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모음인 ‘ㄴ’과 ‘ㄷ’이므로 적절한 예이다.
- ③ ‘북’과 ‘불’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자음인 ‘ㄱ’과 ‘ㄹ’이므로 적절한 예이다.
- ⑤ 곤충의 일종인 ‘잠자리[잠자리]’와 누워서 잠을 자는 곳인 ‘잠자리[잠자리]’의 뜻을 변별해 주는 음운은 자음인 ‘ㅈ’과 ‘ㅉ’이므로 적절한 예이다.

**[문제3]**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습 활동〉**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며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모음 또는 반모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게 되고, 반영하지 않으면 발음과 표기가 불일치하게 된다. 아래의 ㉠~㉤에 대하여 음운 변동과 표기 반영 여부를 파악해 보자. (단, 음의 장단(長短)은 고려하지 않는다.)

- ㉠: 뜨- + -어 → 떠[떠]
- ㉡: 쏘- + -아 → 싸[싸 : ]
- ㉢: 끼- + -어 → 끼어[끼여]
- ㉣: 사- + -아서 → 사서[사서]
- ㉤: 기다리- + -어서 → 기다려서[기다려서]

- ① ㉠에서는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에서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③ ㉢에서는 음운의 축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④ ㉣에서는 음운의 탈락이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⑤ ㉤에서는 음운의 교체가 일어났고,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사-'와 '-아서'에 동일한 모음이 있어서 하나가 탈락하였으며, 표기에 반영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뜨-'의 'ㅡ'가 '-어' 앞에서 탈락하였으며,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② '쏘-'의 'ㅛ'가 반모음 'w'로 교체되고 뒤의 'ㅏ'와 함께 이중 모음 'ㅛㅏ'가 되었으며, 표기에 반영되었다.
- ③ '-어'에 반모음 'j'가 첨가되어 'ㅌ'가 되었으며,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 ⑤ '기다리-'에서 '리'의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고 뒤의 'ㅌ'와 함께 이중 모음 'ㅌj'가 되었으며, 표기에 반영되었다.

**[문제4]**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 + -어 → 기어[기여]’에서는 하나의 단모음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피- + -어서 → 퍼서[퍼 : 서]’에서는 두 모음이 하나의 단모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가- + -아라 → 가라[가라]’에서는 동일한 두 모음이 만나 하나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담그- + -아 → 담가[담가]’에서는 서로 다른 모음이 만나 모음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치우- + -어라 → 치워라[치워라]’에서는 하나의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정답/모범답안]**

4

**[해설]**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담그- + -아 → 담가[담가]’에서는 어간 ‘담그-’의 모음 ‘ㄱ’가 어미의 모음 ‘ㅏ’ 앞에서 탈락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 + -어 → 기어[기여]’에서는 어미의 단모음 ‘ㅣ’에 반모음 ‘j’가 첨가되어 이중 모음 ‘ㄱㅣ’가 되었다. 참고로, 반모음 ‘j’를 첨가하지 않고 ‘기어’를 [기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며 둘 모두 표준 발음이다.

② ‘피- + -어서 → 퍼서[퍼 : 서]’에서는 어간 ‘피-’의 단모음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어 어미 ‘-어서’의 첫 단모음 ‘ㅣ’와 함께 이중 모음 ‘ㅣ’를 이룬다.

③ ‘가- + -아라 → 가라[가라]’에서는 어간 ‘가-’의 모음 ‘ㅏ’와 어미 ‘-아라’의 첫 모음 ‘ㅏ’가 동일하여 한 모음이 탈락한다.

⑤ ‘치우- + -어라 → 치워라[치워라]’에서는 어간 ‘치우-’의 단모음 ‘ㅜ’가 반모음 ‘w’로 교체되어 어미 ‘-어라’의 첫 단모음 ‘ㅣ’와 함께 이중 모음 ‘ㅣ’를 이룬다.

**[문제기]**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를 올바르게 제시한 것은?

< 보 기 >

국어는 음절의 끝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음절 끝에서 다음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음절 끝에 자음군이 오면 한 자음이 탈락한다. …㉠
- 음절 끝에 마찰음이나 파찰음이 오면 모두 [ㄷ]으로 교체된다. …㉡
- 음절 끝에 파열음 중 경음(된소리)이나 격음(거센소리)이 오면 파열음의 평음(예사소리)으로 각각 교체된다. …㉢

	㉠	㉡	㉢
①	밖[박]	жат[잠:]	숲[습]
②	값[갑]	жат[잠:]	숲[습]
③	값[갑]	낫[남]	돛[돛]
④	값[갑]	끝[꿈]	서넛[서넛]
⑤	밖[박]	낫[남]	서넛[서넛]

**[정답/오답답안]**

2

**[해설]**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값[갑]'은 받침의 자음군 중 'ㅅ'이 탈락되는 예이다. 'жат[잠:]'은 받침의 마찰음 'ㅅ'이 'ㄷ'으로 바뀌는 예이다. '숲[습]'은 받침의 파열음의 격음 'ㅍ'이 평음 'ㅂ'으로 바뀌는 예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밖[박]'은 받침의 파열음의 경음 'ㄱ'이 평음 'ㄱ'으로 바뀌는 예이다. '낫[남]'은 받침의 파찰음 'ㅈ'이 'ㄷ'으로 바뀌는 예이다. '끝[꿈]'은 받침의 파열음의 격음 'ㅌ'이 평음 'ㄷ'으로 바뀌는 예이다. '돛[돛]'은 받침의 파찰음 'ㅊ'이 'ㄷ'으로 바뀌는 예이다. '서넛[서넛]'은 마지막 음절 받침의 파열음의 격음 'ㅋ'이 'ㄱ'으로 바뀌는 예이다.





**[문제9]**

〈자료〉를 참고할 때 〈학습 활동〉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료〉**

표준 발음법 제12항에서는 받침 ‘ㅎ’의 발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ㅎ(ㄸ, ㅌ)’ 뒤에 ‘ㄱ, ㄷ, 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ㄷ]으로 발음한다.
2. ‘ㅎ(ㄸ, ㅌ)’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4. ‘ㅎ(ㄸ,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학습 활동〉**

다음 단어의 표준 발음을 알아보고, 표준 발음에 적용된 음운 변동을 네 가지 유형(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분류해 보자.

단어	표준 발음	음운변동
달고	㉠	축약
놓는	[논는]	㉡
얇은	[아는]	㉢

	㉠	㉡	㉢
①	[달:꼬]	교체	탈락
②	[달:꼬]	첨가	교체
③	[다:코]	첨가	탈락
④	[다:코]	교체	교체
⑤	[다:코]	교체	탈락

**[정답/모범답안]**

5

**[해설]**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달고’의 표준 발음은 〈자료〉의 ‘1’에 따라 축약이 일어나서 [다 : 코]가 된다. ‘ㅎ’과 ‘ㄱ’이 합쳐져 ‘ㅋ’이 된 것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다 : 코]이다.
- ㉡ ‘놓는’의 표준 발음은 〈자료〉의 ‘3’에 따라 [논는]이 된다. 받침 ‘ㅎ’이 ‘ㄷ’으로 교체된 후 ‘ㄷ’이 ‘ㄴ’으로 교체된 것이므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교체’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교체’이다.
- ㉢ ‘얇은’의 표준 발음은 〈자료〉의 ‘4’에 따라 [아는]이 된다. 받침 ‘ㅎ’ 중 ‘ㅎ’의 탈락이 나타나므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탈락’이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탈락’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달 : 꼬]는 〈자료〉의 ‘1’에 따라 표준 발음이 될 수 없다. ‘놓는’을 발음할 때는 〈자료〉의 ‘3’에 따라 첨가가 일어나지 않으며, ‘얇은’을 발음할 때는 〈자료〉의 ‘4’에 따라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문제10]**

<보기>의 ㉠~㉥과 관련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표준 발음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형식 형태소와 관련된 음운 변동을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조항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예와 함께 이해해 보자.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ㄷ)’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

- ① ㉠: ‘홀이불[훈니불]’에는 조사나 접미사가 없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② ㉠: ‘같이[가치]’에서는 어근의 받침 ‘ㅌ’ 뒤에 접미사의 모음 ‘ㅣ’가 결합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③ ㉡: ‘달히다[다치다]’에서는 접미사의 자음이 탈락된 후 모음 ‘ㅣ’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는군.
- ④ ㉢: ‘신기다[신기다]’의 ‘-기’는 사동 접미사이므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⑤ ㉢: ‘담고[담 : 꼬]’에서는 어간의 받침 ‘ㅁ’ 뒤에 ‘ㄱ’을 첫소리로 가지는 어미가 결합하여 경음화가 일어나는군.

**[정답/모범답안]**

3

**[해설]**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달히다’에서 ‘-히’는 접미사이므로, ㉡에 따라 ‘다티다 →[다치다]’가 된다. 여기서 ‘티’의 ‘ㅌ’은 ‘ㄷ’과 ‘ㅎ’이 축약된 것이므로, 탈락되는 자음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홀이불’을 ‘호치불’로 발음하지 않는 것은 ‘이불’이 실질 형태소이므로 ㉠의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같이’에서 어근 ‘갈’에 결합한 ‘-이’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므로,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 [가치]가 된다.
- ④ ‘신기다’에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흔히 나타나는 [신끼다]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
- ⑤ ‘담고’의 어간 ‘담’ 뒤에 온 ‘-고’는 어미이며 첫소리가 ‘ㄱ’이므로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음화된다.

**[문제11]**

〈보기〉를 참고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말소리가 서로 이어질 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영향을 받아 그 말소리와 같거나 비슷하게 교체되는 현상을 ‘동화(同化)’라고 한다. 동화는 그것이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로 나눌 수 있다. 순행 동화는 ‘길눈[길룬]’에서처럼 뒤의 말소리가 앞의 말소리의 영향을 받아 동화되는 것이고, 역행 동화는 ‘난로[날 : 로]’에서처럼 앞의 말소리가 뒤의 말소리의 영향을 받아 동화되는 것이다.

- ① ‘혼란’의 표준 발음에서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② ‘쪽문’의 표준 발음에서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③ ‘불놀이’의 표준 발음에서는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④ ‘흙냄새’의 표준 발음에서는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⑤ ‘값나가다’의 표준 발음에서는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정답/오답답안]**

4

**[해설]**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흙냄새’는 [흙냄새]로 발음되는데 ‘ㄹ’이 탈락한 후에 앞의 말소리 ‘ㄱ’이 뒤의 말소리 ‘ㄴ’의 영향을 받아 동화된다. 따라서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혼란’은 [홀 : 란]으로 발음되는데 앞의 말소리 ‘ㄴ’이 뒤의 말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동화된다. 따라서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② ‘쪽문’은 [쫘문]으로 발음되는데 앞의 말소리 ‘ㄱ’이 뒤의 말소리 ‘ㅁ’의 영향을 받아 동화된다. 따라서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③ ‘불놀이’는 [불로리]로 발음되는데 뒤의 말소리 ‘ㄴ’이 앞의 말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동화된다. 따라서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 ⑤ ‘값나가다’는 [감나가다]로 발음되는데 ‘ㅅ’이 탈락한 후에 앞의 말소리 ‘ㅂ’이 뒤의 말소리 ‘ㄴ’의 영향을 받아 동화된다. 따라서 역행 동화가 일어난다.

## #2. 형태소

[배우고 있는 부분, 지도 그리기]

### 음운 - 형태소 - 단어 - 구, 절 - 문장

○ 형태소 : 뜻(의미)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의미의 최소단위)

1)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약간의 어근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의존 형태소 -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2) 의미의 기능 여부에 따라

┌실질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근, 어간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형식 형태소 - 조사,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이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 음운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형태

[받침의 유무로 구분]	[모음조화로 구분]
책상 : 책상+은	갈다 : 갈+았+다
익자 : 익자+를	먹다 : 먹+었+다

\* 형태론적 이형태 : 음운론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형태

[참고] 매개 모음 '-으-'는 형태소 자격이 없다.

⇒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인 까닭에 '-으-'가 실질적, 형식적 기능을 해야만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으-'는 홀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질 형태소에 붙더라도 말과 말 사이에서 문법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다만 발음의 편의상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니다.

예) 먹다 ⇒ 먹으니, 먹으면, 먹으나

# [꼭 정리해야 할 EBS문항]

## [문제1]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하고,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또한 접미사가 결합하여 능동사를 피동사로,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꾸기도 한다.

- 우리는 장작을 ㉠높이 쌓아 올렸다.
- 어미 새는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다.
- 그는 온도를 ㉢낮추려고 바닥에 물을 뿌렸다.
- 나무 그림자가 서 있는 사람으로 ㉣헛보였다.
- 동생은 있는 힘껏 대문을 ㉠밀쳐 보았다.
- 가는 곳마다 ㉢짓밟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 ① 같은 형태의 접미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과 ㉡의 품사는 서로 같다.
- ② ㉡의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지만 ㉢의 접미사는 그렇지 못하다.
- ③ ㉢과 ㉣에 결합한 접미사는 모두 주동사를 사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④ ㉢과 ㉣은 둘 다 접두사와 접미사를 모두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 ⑤ ㉢과 ㉣에 결합한 접미사는 모두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단어의 이해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의 '헛보였다'와 ㉢의 '짓밟힌'에는 각각 접미사 '-이-', '-히-'가 결합되었는데, 둘 다 능동사를 피동사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이'는 형용사를 부사로 바꾸어 주고, ㉡의 '-이'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준다.
- ② ㉡의 '-이'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고, ㉢의 '-추-'는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어 준다.
- ③ ㉢의 '-추-'는 형용사를 사동사로 바꾸어 주고, ㉣의 '-치-'는 강조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④ ㉢에는 접두사 '헛-'과 접미사 '-이'가 결합했고, ㉣에는 접미사 '-치-'가 결합했다.

**[문제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활동을 할 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단어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다. 가령, ‘입’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동시에 하나의 단어인 경우도 있고, ‘높이’처럼 ‘높-’, ‘-이’의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 보 기 〉

※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형태소와 단어로 분석해 보자.

	형태소	단어
마당을	마당, 을	마당, 을
깨끗하게	㉠	㉡
치웠다	치우-, -었-, -다	치웠다

	㉠	㉡
①	깨-, 깨끗-, -하-, -게	깨끗, 하게
②	깨끗-, -하-, -게	깨끗, 하게
③	깨끗-, -하-, -게	깨끗하게
④	깨끗-, -하게	깨끗, 하게
⑤	깨끗-, -하게	깨끗하게

**[정답/모범답안]**

3

**[해설]**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깨끗-’, ‘-하-’, ‘-게’는 모두 형태소이다. 또한 어근 ‘깨끗-’에 접미사 ‘-하-’가 결합된 ‘깨끗하다’는 하나의 단어이다. ‘깨끗하-’는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각각의 활용형들 역시 하나의 단어이다. 따라서 ‘깨끗하-’에 어미 ‘-게’가 결합한 활용형 ‘깨끗하게’ 역시 하나의 단어이다.

**[문제3]**

㉠,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의존 명사가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 의존 명사는 다른 명사와는 달리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외에도 의존 명사는 그 쓰임에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결합할 수 있는 격 조사가 제한됨. ...㉠
-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한됨. ...㉡
- 결합할 수 있는 서술어의 종류가 한정적임.

일부 의존 명사는 이러한 제약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가령,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와 같은 문장에서 의존 명사 '리'는 주격 조사와 주로 결합하고, 관형사형 어미 '-을/-ㄹ'의 수식만을 받으며 결합할 수 있는 서술어도 '있다/없다'류에 한정되는 것이다.

- ① 평소 느낀 바를 말해라.
- ② 그 친구가 돌아올 줄 몰랐다.
- ③ 형이 건강하니 기뻐 따름이다.
- ④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골라 보아라.
- ⑤ 집에 오는 동안에 친구를 만났다.

**[정답/모범답안]**

3

**[해설]**

**단어의 개념**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의존 명사 '따름'은 '고마운 따름이다.', '당황할 따름이다.'처럼 주로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고,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도 '-을/-ㄹ'만이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확인되는 의존 명사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존 명사 '바'는 '기여한 바가 크다.', '알던 바와 다르다.'처럼 여러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도 '말은 바 책임을 다하다.', '공헌하는 바가 크다.', '다를 바가 없다.' 등에 서와 같이 '-은/-ㄴ', '-는', '-을/-ㄹ'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확인되는 의존 명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의존 명사 '줄'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다.', '밥을 할 줄을 알다.'처럼 주로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지만,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속인 줄도 모르다.', '시간 가는 줄 모르다.', '운전할 줄 모르다.' 등에서와 같이 '-은/-ㄴ', '-는', '-을/-ㄹ'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확인되는 의존 명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존 명사 '것'은 '먹는 것이 많다.', '할 것을 하다.'처럼 여러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도 '이긴 것을 알았다.', '읽는 것을 들었다.', '집에 돌아갈 것을 알았다.' 등에서와 같이 '-은/-ㄴ', '-는', '-을/-ㄹ'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확인되는 의존 명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의존 명사가 아닌 명사 '동안'은 '집에 있는 동안에', '학교에 갈 동안에'처럼 주로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지만,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마음먹은 동안', '집에 가는 동안', '밥을 먹을 동안' 등에서와 같이 '-은/-ㄴ', '-는', '-을/-ㄹ'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모두 확인되는 의존 명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문제4]**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질문]** 선생님, “집에 가도 □?”에서 □에 ‘되’와 ‘돼’ 중에 어떤 것을 써야 맞아요?

**[답변]** 용언을 어간과 어미로 구분하여 어간의 형태가 어떠한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가 어떠한지를 따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에는 ‘돼’를 써야 합니다.

- ① 선생님을 뵈도 할 말이 없다.
- ② 형은 있는 힘껏 나사를 쨌 보았다.
- ③ 명절을 쌌으니 돌아갈 일만 남았다.
- ④ 그는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쨌다.
- ⑤ 턱을 괘 상태로 오래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정답/모범답안]**

5

**[해설]**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턱을 괴다’에서 ‘괴다’의 어간 ‘괴-’에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는 ‘괘’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뵈다’의 어간 ‘뵈-’에 어미 ‘-어도’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이기 때문에 ‘뵈도’로 적는다.
- ② ‘쨌다’의 어간 ‘쨌-’에 어미 ‘-어’가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이기 때문에 ‘쨌’로 적는다.
- ③ ‘쌌다’의 어간 ‘쌌-’에 어미 ‘-었-’이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이기 때문에 ‘쌌’으로 적는다.
- ④ ‘쨌다’의 어간 ‘쨌-’에 어미 ‘-었-’이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이기 때문에 ‘쨌’으로 적는다.



**[문제5]**

〈보기〉의 ㉠이 확인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형태소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어떤 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았-’, ‘-었-’, ‘-였-’ 등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았-’과 ‘-었-’은 결합하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 모음 종류에 따라 선택된다. 반면 ㉠선어말 어미 ‘-였-’은 특별한 어간과 결합할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았-’, ‘-었-’과 차이를 보인다.

- ① 노인은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였다.
- ② 강아지로 알고 키운 것이 호랑이었다.
- ③ 그는 천천히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 ④ 후배들은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다.
- ⑤ 나는 거울을 보고 움츠러든 어깨를 폈다.

**[정답/오답답안]**

4

**[해설]**

**형태**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하였다’는 어간 ‘하-’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하였다’는 ‘하- + -었- + -다’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었-’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끓였다’는 ‘끓다’의 사동사 어간 ‘끓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끓였다’는 ‘끓- + 이- + -었- + -다’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었-’을 확인할 수 없다.

② ‘호랑이었다’는 ‘호랑이’에 서술격 조사 ‘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호랑이었다’는 ‘호랑이 + 이- + -었- + -다’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었-’을 확인할 수 없다.

③ ‘끄덕였다’는 ‘끄덕’에 접미사 ‘-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끄덕였다’는 ‘끄덕 + -이- + -었- + -다’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었-’을 확인할 수 없다.

⑤ ‘폈다’는 ‘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폈다’는 ‘펴- + -었- + -다’로 분석되므로 선어말 어미 ‘-었-’을 확인할 수 없다.

**[문제6]**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명사 앞에 오는 접두사는 관형사적 성격을 갖는 반면, 용언 앞에 오는 접두사는 부사적 성격을 갖는다. 예컨대 ‘맨손’의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드높다’의 ‘드-’는 ‘매우’ 또는 ‘심하게’라는 뜻을 갖는 것이다. 한편 ‘덧신’, ‘덧나다’에서 ‘덧-’은 ㉠유사한 의미로 명사나 동사 모두와 결합이 가능한 접두사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 ① 곁-: 곁-치레, 곁-늡다
- ② 엇-: 엇-각, 엇-나가다
- ③ 맞-: 맞-대결, 맞-물다
- ④ 들-: 들-개, 들-꿍다
- ⑤ 헛-: 헛-고생, 헛-살다

**[정답/모범답안]**

4

**[해설]**

**파생어의 형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들-개’의 ‘들-’은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갖는 접두사이고, ‘들-꿍다’의 ‘들-’은 ‘마구’, ‘몹시’의 뜻을 갖는 별개의 접두사이다. 따라서 유사한 의미로 명사와 동사 모두와 결합하는 접두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곁-치레’와 ‘곁-늡다’의 ‘곁-’은 ‘실속과는 달리 곁으로만 그러하다’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유사한 의미로 명사와 동사 모두와 결합하는 접두사의 예로 적절하다.

② ‘엇-각’과 ‘엇-나가다’의 ‘엇-’은 ‘어긋나다’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유사한 의미로 명사와 동사 모두와 결합하는 접두사의 예로 적절하다.

③ ‘맞-대결’과 ‘맞-물다’의 ‘맞-’은 ‘마주 대하여’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유사한 의미로 명사와 동사 모두와 결합하는 접두사의 예로 적절하다.

⑤ ‘헛-고생’과 ‘헛-살다’의 ‘헛-’은 ‘보람 없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유사한 의미로 명사와 동사 모두와 결합하는 접두사의 예로 적절하다.

**[문제기]**

〈보기〉의 파생어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날개, 덮개, 베개, 지우개
- ㉡ 군기침, 군말, 군살, 군것
- ㉢ 꼬이다, 놓이다, 떼이다, 쌓이다
- ㉣ 꿩이다, 높이다, 줄이다, 붙이다
- ㉤ 신비롭다, 지혜롭다, 풍요롭다, 향기롭다

- ① ㉠에서 접미사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고, ㉡에서 접두사는 ‘쓸데없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② ㉠은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다르지만, ㉢에서는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모두 동일하다.
- ③ ㉢에 쓰인 접미사는 피동사를 파생하고, 동일한 형태의 접미사가 ㉣에서는 사동사를 파생한다.
- ④ ㉣에서 접미사는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과 결합하지만, ㉤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과만 결합한다.
- ⑤ ㉤에서 접사는 홀로 쓰일 수 없는 어근과 결합하지만, ㉤에서는 홀로 쓰일 수 있는 어근과 결합한다.

**[정답/모범답안]**

2

**[해설]**

**파생어의 형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 어근 ‘날-’, ‘덮-’, ‘베-’, ‘지우-’ 등은 모두 동사이고 파생어 ‘날개’, ‘덮개’, ‘베개’, ‘지우개’ 등은 명사이므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에서 어근‘꿩-’, ‘줄-’, ‘붙-’과 파생어 ‘꿩이다’, ‘줄이다’, ‘붙이다’는 모두 동사이므로 어근과 파생어의 품사가 동일하다. 그러나 ‘놓이다’는 동사이지만, ‘놓-’은 형용사이므로 어근과 파생어의 품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접미사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나타내고, ㉡에서 접두사 ‘군-’은 ‘쓸데없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한 설명이다.
- ③ ㉢은 피동 접미사 ‘-이-’가 쓰인 피동사이고, ㉣은 사동 접미사 ‘-이-’가 쓰인 사동사라는 진술은 적절한 설명이다.
- ④ ㉣에서 접미사 ‘-이-’ 앞에 ‘꼬-’, ‘떼-’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이고 ‘놓-’, ‘쌓-’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인 반면, ㉤에서 어근‘신비’, ‘지혜’, ‘풍요’, ‘향기’ 등은 모두 모음으로 끝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에서 어근 ‘꿩-’, ‘놓-’, ‘줄-’, ‘붙-’ 등은 모두 동사의 어간이므로 홀로 쓰일 수 없는 반면, ㉤에서 ‘신비’, ‘지혜’, ‘풍요’, ‘향기’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명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문제8]**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을 ‘◇+◎+◇+☆’처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 보 기 >

다음은 용언을 구성하는 형태소들을 단어 형성에 관련되는 어근과 접사, 활용에 관련되는 어미로 분류하고 각각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목에 가게를 열었다.  
→ ◎+◎+☆
- 우리는 평야가 드넓게 펼쳐진 곳을 지났다.  
→ ◇+◎+☆
- 형은 용돈을 남기어 저금을 했다.  
→ ◎+◇+☆

- ① 아이들은 한참 뛰는 뒤에 들어왔다.
- ② 창문에 창호지를 덧붙여 바람을 막았다.
- ③ 힘든 일은 서로서로 도와주며 지내야 한다.
- ④ 아침에 약속 시간을 늦추었는데 깜빡 잊었다.
- ⑤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정답/오답답안]**

2

**[해설]**

형태소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오가는’은 ‘오-(어근)’, ‘가-(어근)’, ‘-는(어미)’으로 형태소가 분석된다. ‘드넓게’는 ‘드-(접사)’, ‘넓-(어근)’, ‘-게(어미)’로 형태소가 분석된다. ‘남기어’는 ‘남-(어근)’, ‘-기-(접사)’, ‘-어(어미)’로 형태소가 분석된다. 이렇게 볼 때, <보기>에서 어근은 ◎로, 접사는 ◇로, 어미는 ☆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덧붙여’는 ‘덧-(접사)’, ‘붙-(어근)’, ‘-이-(접사)’, ‘-어(어미)’로 형태소가 분석되어서 ‘◇+◎+◇+☆’처럼 표시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뛰는’은 ‘뛰-(어근)’, ‘-는(어미)’으로 형태소가 분석된다.
- ③ ‘도와주며’는 ‘돕-(어근)’, ‘-아(어미)’, ‘주-(어근)’, ‘-며(어미)’로 형태소가 분석된다.
- ④ ‘늦추었는데’는 ‘늦-(어근)’, ‘-추-(접사)’, ‘-었-(어미)’, ‘-는데(어미)’로 형태소가 분석된다.
- ⑤ ‘짓누르는’은 ‘짓-(접사)’, ‘누르-(어근)’, ‘-는(어미)’으로 형태소가 분석된다.

## #3. 품 사

### [품사의 패턴 파악]

기능 기준	형태 기준	9품사(의미기준)	필수 출제패턴 정리
체언	불변어	명사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유정명사와 부정명사의 조사사용 차이를 알고 있는가?
		대명사	인칭대명사, 미지칭, 부정칭, 재귀대명사 알고 있나? 기본 지시대명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수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관계언		조사	격조사, 모조리 암기하고 있나? 보조사 개념을 이해하는가?
독립언		감탄사	-
수식언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나?
	부사	문장부사를 알고 있나? 부사와 용언을 구분할 수 있나?	
용언	가변어	동사	불규칙활용, 본용언/보조용언 알고 있나?
		형용사	동사, 형용사 구분하나?

## [꼭 정리해야 할 EBS문항]

### [문제1]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의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우리말에서는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굳어져 관형사로 사전에 등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주로 하고 의미도 서술어로 쓰일 때와는 다르다.

다음 밑줄 친 예 중에서 활용형이 굳어져 사전에 관형사로 등재된 경우를 찾아보자.

- ㉡ 그는 자기 일 외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 왼쪽 다리를 바른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다.
- ㉣ 쌍둥이들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 ㉤ 그는 생각이 바른 사람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정답/모범답안]

1

#### [해설]

수식언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에서 유래된 관형사 '다른'은 '당장 문제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의미를 갖는데, 이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다르다'와 의 미상 차이를 갖는다. ㉡이 관형사 '다른'이 쓰인 예인 반면, ㉤은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다르다'의 활용형 '다른'이 쓰인 예이다. 관형사 '바른'은 ㉢과 같이 '오른(오른쪽을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인다. ㉤은 '겉으로 보기에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다.'의 의미를 갖는 '바르다'의 활용형 '바른'이 쓰인 예이다. 따라서 사전에 등재된 관형사가 쓰인 예는 ㉡과 ㉣이다.

**[문제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에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거나 달라진다 해도 그 현상을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규칙 활용이라 하고, 어간과 어미가 그 환경에 따라 불규칙하게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만 변하는 것, 어미만 변하는 것, 어간과 어미 모두 변하는 것이 있다. 다음은 활용의 몇 가지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 ‘ㄹ’ 탈락: 어미 ‘-아/-어’ 앞에서 어간 끝의 ‘ㄹ’이 항상 탈락함.
- ‘ㄹ’ 불규칙 활용: 어간 끝의 ‘ㄹ’ 뒤에서 어미 ‘-어’가 ‘-려’로 바뀜.
- ‘ㄹ’ 불규칙 활용: 어간 끝의 ‘ㄹ’이 어미 ‘-아/-어’ 앞에서 ‘ㄹㄹ’로 바뀜.
- ‘ㅎ’ 불규칙 활용: 어간의 끝소리 ‘ㅎ’이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하고 어미도 바뀜.

〈 보기 2 〉

- ㄱ. 물에 떠 있는 연잎이 정말 크다.
- ㄴ. 오늘에 이르러 고백하건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지는 못했다.
- ㄷ. 지금 주인분이 따라 준 차는 저번에 마셨던 차와 맛이 달라.
- ㄹ. 가을이 되니 은행잎이 노랗게 변했네.  
길에 떨어진 은행잎이 노래.
- ㅁ. 동생이 이르는 말을 듣고 엄마는 아침부터 나를 혼냈다.  
동생이 일러 엄마한테 아침부터 혼났다.

- ① ㄱ의 ‘떠’는 어미 ‘-어’ 앞에서 어간 끝의 ‘ㄹ’이 탈락한 것으로 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ㄴ의 ‘이르러’와 ‘우러러’는 모두 어간 끝의 ‘ㄹ’ 뒤에서 어미 ‘-어’가 ‘-려’로 바뀐 것이군.
- ③ ㄷ의 ‘따라’는 ‘ㄹ’이 탈락한 것으로 규칙 활용에 해당하지만, ‘달라’는 어간 끝의 ‘ㄹ’이 어미 ‘-아’ 앞에서 ‘ㄹㄹ’로 바뀐 것으로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④ ㄹ의 ‘노래’는 ‘노랗게’와 달리 어미 ‘-아’가 와서 어간의 끝소리 ‘ㅎ’이 탈락하고 어미도 변화한 사례에 해당하는군.
- ⑤ ㅁ의 ‘일러’는 ‘이르’와 달리 어미 ‘-어’가 와서 어간 끝의 ‘ㄹ’이 ‘ㄹㄹ’로 바뀐 것이군.

**[정답/모범답안] 2**

**[해설]**

**[유형 이해]**

용언의 활용에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보기〉에 제시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단어의 활용에 적용해 본다.

**[유형 공략]**

- ① 〈보기 1〉에 제시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 이해한다.
- ②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의 경우, 그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한다.
- ③ 〈보기 1〉에 제시된 활용의 양상을 이해하고, 〈보기 2〉의 구체적 용례를 분석하여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정답 풀이]**

② ㄴ의 ‘이르러’는 ‘이르(다)+어’인데, 〈보기 1〉을 참고할 때 어미 ‘-어’가 ‘-려’로 바뀐 ‘려’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우러러’는 ‘우러르(다)+어’로, 어간 끝의 모음 ‘ㄹ’이 어미 ‘-어’ 앞에서 탈락하여 ‘우러러’가 된 것이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ㄴ의 ‘이르러’와 ‘우러러’가 모두 어간 끝의 ‘ㄹ’ 뒤에서 어미 ‘-어’가 ‘-려’로 바뀐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ㄱ의 ‘떠’는 ‘뜨(다)+어’로, 〈보기 1〉에 제시된 ‘ㄹ’ 탈락의 사례이며, 이 경우 ‘ㄹ’은 항상 탈락하기 때문에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③ ㄷ의 ‘따라’는 ‘따르(다)+아’로 ‘ㄹ’이 탈락한 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달라’는 ‘다르(다)+아’로, 〈보기 1〉을 참고할 때 어간 끝의 ‘ㄹ’이 어미 ‘-아’ 앞에서 ‘ㄹㄹ’로 바뀐 ‘ㄹ’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 ④ ㄹ의 ‘노래’는 ‘노랗(다)+아’로 어간의 끝소리 ‘ㅎ’이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하고 ‘노라+아’가 ‘노래’로 바뀐 ‘ㅎ’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때 어간과 어미 모두 변화한다.
- ⑤ ㅁ의 ‘일러’는 ‘이르(다)+어’로, 어미 ‘-어’가 와서 어간 끝의 ‘ㄹ’이 ‘ㄹㄹ’로 바뀌어 ‘일러’가 된 것이다. 따라서 ‘ㄹ’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문제3]**

<보기>의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형태는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다. 이들의 품사를 정확히 구분하려면 문장에서 이들 단어들의 쓰임이나 기능, 의미 등을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다음 문장의 밑줄친 단어들의 품사를 살펴보자.

- (가) [ 그대여! ㉠그 마음 변치 마오.  
          ㉡그가 목소리를 높여 연설하기 시작했다.
- (나) [ 모두 웃고만 있을 ㉠뿐이지 말이 없었다.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 (다) [ 약속 시간이 ㉠언제였더라.  
          시간이 나면 ㉡언제 만남시다.
- (라)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동생은 세 번 ㉡만에 시험을 통과했다.
- (마) [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다섯 사람이 한 차에 타기는 어렵다.

- ① (가): ㉠은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은 격 조사와 결합하고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이다.
- ② (나): ㉠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격 조사와 결합한 의존 명사이고, ㉡은 앞말과 붙여 쓰는 조사이다.
- ③ (다): ㉠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이고, ㉡은 동사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 ④ (라): ㉠은 앞말과 붙여 쓰는 조사이고, ㉡은 횟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이는 의존 명사이다.
- ⑤ (마): ㉠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수사이고, ㉡은 뒤의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정답/오답답안]**

3

**[해설]**

**품사의 특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언제였더라’는 ‘언제’에 서술격 조사 ‘이’가 결합한 후에 선어말 어미 ‘-었’, ‘-더’와 종결 어미 ‘-라’가 결합한 형태이다. 여기서 ㉠ ‘언제’는 ‘잘 모르는 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명사가 아니다. ㉡ ‘언제’는 ‘만남시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그’는 ‘마음’을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이고, ㉡ ‘그’는 격 조사와 결합한 대명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 ‘뿐’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격 조사와 결합하는 의존 명사이고, ㉡ ‘뿐’은 보조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④ ㉠ ‘만’은 보조사이고, ㉡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횟수를 끝으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 ‘다섯’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수사이고, ㉡ ‘다섯’은 명사를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문제4]**

<보기>의 (가)~(마)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가) ㉠ 당국에서 긴축 경제 정책을 폈다.  
㉡ 운동장에서 친구를 만났다.
- (나) ㉠ 그가 책임자가 아니다.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다) ㉠ 침묵은 금이다.  
㉡ 그는 솜씨가 제법이다.
- (라) ㉠ 산에는 눈이 내린다.  
㉡ 내년에도 또 놀러 오렴.
- (마) ㉠ 개는 늑대와 비슷하다.  
㉡ 고모는 개와 늑대를 무서워한다.

- ① (가): ‘에서’는 주격 조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다.
- ② (나): ‘가’와 ‘이’는 주격 조사로도 쓰이고 보격 조사로도 쓰일 수 있다.
- ③ (다): ‘이다’는 명사와도 결합하고 부사와도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 ④ (라): ‘에’는 보조사와도 결합하고 격 조사와도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 ⑤ (마): ‘와’는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고 접속 조사로도 쓰일 수 있다.

**[정답/모범답안]**

4

**[해설]**

관계언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산에는’, ‘내년에도’에서 조사 ‘에’는 각각 ‘는’과 ‘도’와 결합하고 있는데, ‘는’, ‘도’는 보조사이므로 ‘에’가 격 조사와 결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당국에서’는 주어이므로 이때의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이고 있고, ㉡ ‘운동장에서’는 부사어이므로 이때의 ‘에서’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② ㉠ ‘그가’는 주어이므로 이때의 ‘가’는 주격 조사이고 ‘책임자가’는 보어이므로 이때의 ‘가’는 보격 조사이다. ㉡ ‘물이’는 주어이므로 이때의 ‘이’는 주격 조사이고 ‘얼음이’는 보어이므로 이때의 ‘이’는 보격 조사이다.
- ③ ㉠ ‘금이다’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명사 ‘금’과 결합하고 있고, ㉡ ‘제법이다’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부사 ‘제법’과 결합하고 있다.
- ⑤ ㉠ ‘늑대와’의 ‘와’는 부사격 조사이고, ㉡ ‘개와’의 ‘와’는 접속 조사이다.

**[문제5]**

<보기>의 ㉠과 동일하게 부정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아닌 것은?

〈 보 기 〉

‘언제, 누구, 무엇, 어디’는 모르는 대상을 알기 위해 설명 의문문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판정 의문문에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판정 의문문이나 평서문, 명령문 등에 쓰이는 ‘언제, 누구, 무엇, 어디’는 의문사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특정적으로 꼭 집어서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부정칭’의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것’을 의미한다. 재운이가 바쁘게 걸어가는 정아에게 ‘어디 가?’라고 물어보고, 정아가 ‘응.’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때 재운이는 ‘㉠어디 가?’를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판정 의문문으로 사용한 것이 된다.

- ① A: 누가 왔었어?  
B: 응, 아까 왔다 갔어.
- ② A: 아까 매점에서 선재랑 뭐 먹었어?  
B: 빵하고 우유 먹었어.
- ③ A: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B: 노랫소리 같은데.
- ④ A: 저기 틈새도 한번 찾아보자.  
B: 과연 여기로 뭇가가 들어갈 수 있을까?
- ⑤ A: 나 언제든 와도 돼?  
B: 아니, 4월 이후에 오는 게 좋아.

- ① ①번
- ② ②번
- ③ ③번
- ④ ④번
- ⑤ ⑤번

**[정답/모범답안]**

2

**[해설]**

**의문문**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어디’가 부정칭 대명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어디 가?’라는 질문에 대해 특정한 장소를 알려 주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어딘가를 간다.’라는 의미로 ‘응.’이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②에서는 ‘뭐 먹었어?’라는 질문에 특정한 음식을 답하였으므로 ‘뭐’는 부정칭 대명사의 예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누가’에 대한 대답으로 특정한 사람을 대답하지 않았으므로 ‘누가’는 부정칭 대명사의 예이다.
- ③ 이 문장에서 ‘어디’는 가리키는 곳을 특정하여 묻는 의문사로 사용되지 않았다. 대답에서의 ‘노랫소리’는 ‘이상한 소리’에 대한 답이다.
- ④ ‘뭇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것’의 의미이므로 부정칭 대명사의 예이다.
- ⑤ ‘언제’는 조사 ‘든’과 함께 쓰여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때’를 의미한다. B가 ‘4월 이후’라는 특정한 시간을 대답하기는 하였지만, A가 ‘언제’를 사용한 의도는 ‘아무 때나’의 의미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부정칭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문제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엄마:**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방학에도 배낭여행을 가겠대요.

**아빠:** 그래? 이번에는 ㉠어디로 간대요?

**엄마:** 경주 쪽으로 가려나 봐요. 간 김에 할아버지 산소에 들른다고.

**아빠:** 대견하네요. ㉡당신께서 무척 아끼던 손주들인데, 아버님도 반가우시겠어.

**엄마:** 방학마다 여행을 다니니 좀 걱정스러워요. 석호는 이제 졸업반인데,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만 하고.

**아빠:** 다 큰 성인인데, ㉣저희끼리 ㉠어디든 다닐 수 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둘 다 알아서 잘할 거예요.

- ① ㉠: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 ② ㉡: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 ③ ㉢: 앞에서 이미 나온 사람을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 ④ ㉣: '우리'의 겸양 표현으로, 1인칭 대명사이다.
- ⑤ ㉣: 가리킴을 받는 대상을 알지 못할 때 쓰이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정답/모범답안]**

3

**[해설]**

품사의 특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했거나 나온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의 '자기'는 석호를 가리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디'는 의문문에 쓰여서 모르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 ② '당신'은 재귀칭 대명사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로, 여기에서는 앞서 나온 할아버지를 가리킨다.
- ④ '저희'는 앞에서 이미 말했거나 나온 사람들을 다시 가리키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우리'의 겸양 표현으로 쓰이는 '저희'는 '저희 선생님이 삽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도로 쓰인다.
- ⑤ '어디'는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문제기]**

밑줄 친 ㉠,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품사 통용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하는데, ‘밝다’가 (가)에서는 동사로, (나)에서는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 (가) 벌써 새벽이 밝아 온다.
- (나) 햇살이 밝아 산책하기에 좋다.

- ①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 ② 나는 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나는 회사 ㉡가까이로 이사를 했다.
- ③ 이번 일은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  
동생은 컵에 담긴 우유를 ㉡모두 쏟았다.
- ④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는 시키지도 않은 일에 ㉡스스로 나섰다.
- ⑤ 나는 친구에게 오늘이 ㉠며칠인지 물어보았다.  
그가 ㉡며칠만 시간을 달라며 전화를 해 왔다.

**[정답/모범답안]**

5

**[해설]**

품사의 분류 기준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과 ㉡의 ‘며칠’은 모두 명사로 쓰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아무’는 대명사로, ㉡의 ‘아무’는 관형사로 쓰이고 있다.
- ② ㉠의 ‘가까이’는 부사로, ㉡의 ‘가까이’는 명사로 쓰이고 있다.
- ③ ㉠의 ‘모두’는 명사로, ㉡의 ‘모두’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 ④ ㉠의 ‘스스로’는 명사로, ㉡의 ‘스스로’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글 맞춤법 제47항에서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도 허용한다.’라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은 ‘붙이 꺼져 간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어미 ‘-아/ -어’로 연결되는 경우나 ‘비가 올 성싶다.’처럼 ㉞본용언의 관형사형이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과 함께 쓰일 때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제47항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먼저, 연결 어미 ‘-어’에 보조 용언 ‘지다’나 ‘하다’가 오는 경우는 ‘꿈이 이루어지다.’, ‘꽃을 예뻐하다.’처럼 붙여 쓰기만을 허용한다. ‘-어지다’는 타동사나 형용사를 자동사로 바꾸고, ‘-어하다’는 형용사를 타동사로 바꾼다는 문법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합성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에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는다. 붙여 쓰기를 허용할 경우에는 ‘덤벼들어보아라’처럼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합성 용언의 어간이 두 음절을 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가 버렸다’처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가버렸다’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한편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한 보조 용언이 쓰일 때,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오면 붙여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르는 체를 하다’를 ‘모르는체를 하다’처럼 붙여 쓸 수 없는데, ‘체하다’라는 보조 용언이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둘 이상의 보조 용언이 쓰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완성되어 가는 성싶다’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쓰을 허용한다. 즉 ‘완성되어 가는 성싶다’와 ‘완성되어가는 성싶다’는 허용하지만 ‘완성되어 가는성싶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8]**

밑줄 친 부분이 윗글의 ㉞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했다.
- ② 안 보는 것이 더 좋을 법했다.
- ③ 나는 그 사람과 잘 아는 척했다.
- ④ 나는 종일 아무것도 먹질 못했다.
- ⑤ 하늘에서 많은 눈이 내릴 듯했다.

**[정답/모범답안]**

4

**[해설]**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먹질’은 ‘먹지’에 조사 ‘를’이 결합한 형태가 줄어든 것으로, 관형사형이 아니다. 또한 ‘못하다’는 부사 ‘못’에 ‘하다’가 결합한 보조 용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놓칠’은 본용언 ‘놓치다’의 관형사형이다. 또한 ‘뻔하다’는 의존 명사 ‘뻔’에 ‘하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이다.
- ② ‘좋을’은 본용언 ‘좋다’의 관형사형이다. 또한 ‘법하다’는 의존 명사 ‘법’에 ‘하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이다.
- ③ ‘아는’은 본용언 ‘알다’의 관형사형이다. 또한 ‘척하다’는 의존 명사 ‘척’에 ‘하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이다.
- ⑤ ‘내릴’은 본용언 ‘내리다’의 관형사형이다. 또한 ‘듯하다’는 의존 명사 ‘듯’에 ‘하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이다.

**[문제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오늘은 그가 ㉠올 듯도 싶다.
- 마감 시간이 1시간이나 ㉡늦춰졌다.
- 받은 물건을 ㉢집어넣어 두었다.
- 마감이 닥쳐 원고를 ㉣손대 보았다.
- 그 사실은 ㉤기억해 둘 만하다.

- ① ㉠: ‘올듯도 싶다’처럼 붙여 쓰면 안 된다.
- ② ㉡: ‘늦춰 졌다’처럼 띄어 쓰면 안 된다.
- ③ ㉢: ‘집어넣어두었다’처럼 붙여 쓰면 안 된다.
- ④ ㉣: ‘손대보았다’처럼 붙여 쓰면 안 된다.
- ⑤ ㉤: ‘기억해 둘만하다’처럼 붙여 쓰면 안 된다.

**[정답/모범답안]**

4

**[해설]**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3문단에서는 합성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일 때에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지 않으나 합성 용언의 어간이 두 음절을 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손대 보았다’의 ‘손대-’가 이에 해당하며, 따라서 ‘손대 보았다’처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손대보았다’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4문단의 내용을 참조할 때 옳은 설명이다. 즉 의존 명사 ‘듯’ 뒤에 조사 ‘도’가 오기 때문에 ‘올듯도 싶다’처럼 붙여 쓰면 안 된다.
- ② 2문단의 내용을 참조할 때 옳은 설명이다. 즉 연결 어미 ‘-어’에 보조 용언 ‘지다’가 오기 때문에 ‘늦춰졌다’처럼 붙여쓰기만을 허용한다.
- ③ 3문단의 내용을 참조할 때 옳은 설명이다. 즉 ‘집어넣-’이라는 어간이 ‘두’ 음절이 넘는 합성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집어넣어두었다’처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면 안 된다.
- ⑤ 5문단의 내용을 참조할 때 옳은 설명이다. 즉 보조 용언 ‘두다’와 보조 용언 ‘만하다’가 함께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앞의 보조 용언 ‘두다’를 본용언에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기억해 둘 만하다’와 ‘기억해둘 만하다’는 허용하지만, ‘기억해 둘만하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10]**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붓다<sup>1</sup> [분 : 따] 부어[부어], 부으니[부으니], 붓는[분 : 는]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 붓다<sup>2</sup> [분 : 따] 부어[부어], 부으니[부으니], 붓는[분 : 는]
  - ① 【…에/에게 …을】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 ② 【…에/에게 …을】 불입금, 이자, 갯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
- 붙다 [붙 : 따] 붙어[부러], 붙으니[부르니], 붙는[분 : 는]
  - ①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 ②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 불다 [불 : 다] 불어[부러], 부니[부 : 니], 부오[부 : 오]
  - ①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
  - ② 【…에】 유행, 풍조, 변화 따위가 일어나 휩쓸다.
  - ③ 【…을】 입을 오므리고 날숨을 내어보내어, 입김을 내거나 바람을 일으키다.

- ① ‘붓다<sup>1</sup>’, ‘붓다<sup>2</sup>’, ‘붙다’ 각각의 어간에 어미 ‘-는’이 결합한 세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② ‘붓다<sup>1</sup>①’의 예문으로는 ‘냄비에 물을 붓다.’를, ‘붓다<sup>1</sup>②’의 예문으로는 ‘은행에 적금을 붓다.’를 제시할 수 있다.
- ③ ‘붓다<sup>2</sup>①’은 세 자리 서술어이고, ‘붙다③’은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오래되어 붙은 국수’의 ‘붙은’은 ‘붙다①’의 활용형이다.
- ⑤ ‘개울물이 (    ) 정말 무섭다.’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부니’이다.

**[정답/모범답안]**

5

**[해설]**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붙다②’에 해당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붙으니’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붓다<sup>1</sup>’, ‘붓다<sup>2</sup>’, ‘붙다’ 각각의 어간에 어미 ‘-는’이 결합한 단어들은 모두 [분 : 는]으로 발음하지만, 뜻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음이의 관계이다.
- ② 뜻을 고려할 때, ‘냄비에 물을 붓다.’는 ‘붓다<sup>2</sup>①’의 예문으로, ‘은행에 적금을 붓다.’는 ‘붓다<sup>2</sup>②’의 예문으로 적절하다.
- ③ ‘붓다<sup>2</sup>①’은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고, ‘붙다③’은 주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을 고려할 때, ‘붙은’의 기본형은 ‘붙다’이다.

## #4. 단어의 형성

###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개념어	기억해야 할 패턴
합성어	의미상 구분	대등	- and로 연결되는 낱들 (남녀, 여닫다 등) · 명사+명사→ '와/과' 를 넣었을 때 의미변화 없음 · 용언+용언→ '-고' 로 연결했을 때 의미변화 없음
		종속	- and로 연결되지 않는 낱들 (돋다리, 국밥 등) · 명사+명사→ '와/과' 를 넣었을 때 의미가 다름 · 용언+용언→ '-고' 로 연결했을 때 의미가 다름
		융합	- 사전적 의미를 무시하고 완전 다른 의미로 거듭난 합성어 (춘추=연세, 광음=세월, 모순=앞뒤가 맞지 않음 등)
	형태상 구분	비통사적 합성어	- 어미가 생략되고, 용언의 어간만 남은 합성어 - 부사+체언으로 구성된 합성어 -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다르게 결합된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외 나머지	

###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기억해야 할 패턴
파생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뜻+	주로 접두사, 접미사 중 품사 못 바꾸는 낱
		품사 변경	주로 접미사 (먹+이→먹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문장구조 변경	사동, 피동 접사 (이,히,리,기,우,구,추)
		문장구조 변경+품사변경	사동, 피동 접사가 결합된 형용사 중 (예 : 높다 → 높다)



## [꼭 정리해야 할 EBS문항]

### [문제1]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다른 합성어들과 마찬가지로, 합성 부사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의 품사는 다양하다. 합성 부사는 그 구성 성분에 부사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나 ‘반짝반짝’과 같이 의성어나 의태어가 중첩하여 결합한 합성 부사유형은 구성 성분 가운데 부사가 있는 합성 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사를 구성 성분으로 갖지 않는 합성 부사 유형으로는 ‘밤낮’과 같이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유형이나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유형이 있다.

#### ㉠

- ① 이것저것, 잘못
- ② 잘못, 또다시
- ③ 죄다, 또다시
- ④ 오늘날, 이것저것
- ⑤ 오늘날, 죄다

#### ㉡

- 어느새, 골고루
- 한바탕, 이른바
- 오랫동안, 골고루
- 이른바, 어느새
- 오랫동안, 한바탕

#### [정답/모범답안]

2

#### [해설]

##### 합성어의 형성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합성 부사인 ‘잘못’은 부사 ‘잘’과 ‘못’이 결합한 단어이고, ‘또다시’ 역시 부사 ‘또’와 ‘다시’가 결합한 합성 부사이다. 따라서 ‘잘못’과 ‘또다시’는 모두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합성 부사 ‘한바탕’은 관형사 ‘한’과 명사 ‘바탕’이 결합한 단어이고 ‘이른바’는 동사의 관형사형 ‘이른’에 명사 ‘바’가 결합된 구성이므로 ‘한바탕’과 ‘이른바’는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것저것’은 대명사 ‘이것’과 ‘저것’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므로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또한 ‘골고루’는 부사 ‘고루’가 중복하여 결합한 ‘고루고루’의 준말이므로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어느새’는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이다.

③ 합성 부사 ‘죄다’는 부사 ‘죄’와 ‘다’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은 부사 ‘오래’와 명사 ‘동안’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④ ‘오늘날’은 명사 혹은 부사 ‘오늘’과 명사 ‘날’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고 ‘이것저것’은 대명사끼리 결합한 합성 명사 유형이므로 ‘오늘날’과 ‘이것저것’은 모두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이른바’와 ‘어느새’는 관형사 혹은 관형사형이 명사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다.

⑤ ‘오늘날’은 부사와 부사가 결합한 합성 부사 유형이 아니다. ‘오랫동안’은 부사 ‘오래’와 명사 ‘동안’이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문제2]**

<보기>의 ㉠~㉥를 통해 합성어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그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 돌아서 가신) 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돼 간다.
- ㉡ 그는 사탕을 (깨물었다. / 깨 물었다.)
- ㉢ 그는 첫사랑에 실패했다. / 첫 만남에서 받은 인상은 오래간다.
- ㉣ 철수가 영희와 함께 (들것 / 들 것)을 가져왔다.
- ㉤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혼났다.

- ① ㉠을 보니, 합성어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중간에 다른 요소가 의미 변화 없이 삽입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② ㉡를 보니, 합성어의 의미는 합성어의 어근들로 이루어진 구가 지닌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를 보니, 동일한 말이 합성어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구를 구성하는 단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를 보니, 합성어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다른 문장 성분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⑤ ㉤를 보니, 합성어에는 구성 요소 사이의 연결이 국어 문장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정답/모범답안]**

4

**[해설]**

**{유형 이해}**

합성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다. 단어의 특성, 구와 합성어의 의미 차이, 합성어의 구성 요소, 합성어의 어근 결합 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형 공략}**

- ① 합성어와 구의 차이를 이해한다.
- ② 합성어의 구성 요소와 구성 방식을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④ 합성어 ‘들것’과 구 ‘들 것’은 다른 문장 성분과의 결합 관계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즉 합성어 ‘들것’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큰 들것’처럼 단어 전체가 다른 문장 성분의 꾸밈을 받지만, 구 ‘들 것’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를 구성하는 단어 들 중 일부인 ‘들’이 다른 문장 성분인 ‘영희와 함께’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다른 문장 성분과의 결합 관계를 통해 합성어와 구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풀이}**

- ① ‘돌아가다’는 ‘생명이 없어지거나 끊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죽다’의 높임말로 합성어이며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돌다’와 ‘가다’로 이루어진 구인 ‘돌아 가다’와 그 의미가 다르다. ‘돌아 가다’에는 의미 변화 없이 연결 어미 ‘-아서’가 삽입될 수 있지만, 합성어 ‘돌아가다’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단어 중간에 다른 요소가 의미 변화 없이 끼어들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합성어 ‘깨물다’는 ‘아랫니와 윗니가 맞닿을 정도로 세게 물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단단한 물체를 쳐서 조각이 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깨다’와 ‘입속에 넣어 두다.’라는 의미를 지닌 ‘물다’로 이루어진 구인 ‘깨 물다’와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첫’은 합성어 ‘첫사랑’에서는 단어를 구성하는 어근이지만, ‘첫 만남에서’라는 구에서는 ‘만남’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구를 구성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합성어 ‘올라가다’는 ‘오르+아+가다’, 즉 ‘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 형식으로 이루어져 구성 요소 사이의 연결이 국어 문장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에 부합하지만, 합성어 ‘오르내리다’는 ‘오르+내리다’, 즉 ‘용언의 어간+용언’으로 이루어져 구성 요소 사이의 연결이 국어 문장의 일반적인 구성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문제3]**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이때의 결합 과정이 일반적인 우리말의 문장 구성 방식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합성 용언을 예로 들면, 연결 어미가 없이 용언의 어간끼리 직접 결합한 경우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우리말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사 구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 선행하는 용언의 어간과 연결 어미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떠먹다’의 ‘떠’는 연결 어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뜨-+-어’의 과정에서 ‘-’가 탈락한 경우이기 때문에 용언의 어간끼리 직접 결합한 경우가 아니다. 즉 ‘떠먹다’는 통사적 합성어인 것이다.

㉠

- ① 오토바이가 갑자기 꺼들어 깜짝 놀랐다.
- ② 아침부터 눈이 조금씩 흘뿌리기 시작했다.
- ③ 그렇게 게을러빠져서 어떻게 일을 하니?
- ④ 이 사건의 전말은 내가 꿰뚫고 있다.
- ⑤ 친구가 나를 흘겨보며 지나갔다.

㉡

- 동생은 형에게 내 잘못을 일러바치려 했다.
- 아이는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다.
- 우리는 허겁지겁 굴주린 배를 채웠다.
- 그는 답안지에 자기 이름을 써넣었다.
- 이번만 봐주는 것이니 다음부터 조심해라.

**[정답/오답답안]**

3

**[해설]**

단어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게을러’는 ‘게으르-+-어’로 분석되기 때문에 ‘게을러빠지다’는 연결 어미를 통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반면, ‘굴다’의 어간 ‘굴-’과 ‘주리다’의 어간 ‘주리-’가 연결 어미가 없이 직접 결합한 ‘굴주리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꺼’는 ‘끼-+-어’로 분석되기 때문에 ‘꺼들다’는 연결 어미를 통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또한 ‘일러’는 ‘이르-+-어’로 분석되기 때문에 ‘일러바치다’ 역시 연결 어미를 통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흘다’의 어간 ‘흘-’과 ‘뿌리다’의 어간 ‘뿌리-’가 연결 어미가 없이 직접 결합한 ‘흘뿌리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또한 ‘감다’의 어간 ‘감-’과 ‘싸다’의 어간 ‘싸-’가 연결 어미가 없이 직접 결합한 ‘감싸다’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꿰다’의 어간 ‘꿰-’와 ‘뚫다’의 어간 ‘뚫-’이 연결 어미가 없이 직접 결합한 ‘꿰뚫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반면, ‘써’는 ‘쓰-+-어’로 분석되기 때문에 ‘써넣다’는 연결 어미를 통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흘겨’는 ‘흘기-+-어’로 분석되기 때문에 ‘흘겨보다’는 연결 어미를 통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또한 ‘봐’는 ‘보-+-어’로 분석되기 때문에 ‘봐주다’ 역시 연결 어미를 통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 #5. 문장성분, 서술어자릿수

### [문장성분의 패턴 파악]

문장성분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주성분	주어	체언+격조사(보조사)	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주어 파악
	목적어	체언+격조사(보조사)	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목적어 파악
	보어	체언+격조사	서술어 '되다 / 아니다'
	서술어	용언, 체언+격조사	서술격조사의 활용형태, 서술어 자릿수
생략불가	필수부사어	체언+격조사, 부사(~게)	서술어 자릿수와 연계하여 이해 필수적 부사어 감 잡기
	관형어	-	의존명사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일 때 - 단, 서술어자릿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부속성분	관형어	관형사, 체언+격조사	관형어 : 용언, 체언, 관형사
	부사어	부사, 체언+격조사	부사어 : 용언, 체언, 부사

# [서술어 자릿수, 필수부사어]

## (1) 서술어의 자릿수 + 필수부사어

### ① 서술어의 자릿수

(㉠)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한 자리만 필요로 함.(자동사, 형용사)

예) 새가 운다.      꽃이 핀다.

(㉡)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또 하나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함.(타동사)

⇒ 주어+목적어/보어/필수부사어

예) 나는 물을 마셨다.      물이 얼음이 된다.

그는 서울 지리에 밝다.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두개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

주격, 목적격 조사 이외의 격조사를 가진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수여 동사 - 주다, 보내다) ⇒ 주어 + 목적어 + 목적어/필수 부사어

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순이가 나를 손을 잡아끈다.

### 필수적 성분의 부사어

-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다, 틀리다, ...' 등은 '체언+과/와'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이 그림이 실물과 똑같군요.

(㉡) '넣다, 드리다, 두다, 던지다, 다가서다, ...' 등은 '체언+에/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 수여 동사는 목적어 이외에 '체언+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순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더냐?

(㉣) '삼다, 변하다'는 '체언+(으)로'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할아버지는 조카를 양자로 삼으셨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였다.

(㉤) 이외에도 특정 용언은 '체언+부사격조사'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여기다, 다니다, 주다, 부르다, 하다, 못하다, 바뀌다, 속다,  
제출하다, 맞다, 적합하다, 선출하다, 어울리다, (-으로) 만들다,  
일컫다, (-이라) 이르다, (-와) 의논하다, (-에서) 살다

# [꼭 정리해야 할 EBS문항]

## [문제1]

<보기>의 (가)에 들어갈 ㉠~㉣에 대한 예문과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지원: 선생님,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도 ‘이/가’이고, 보어를 표시하는 조사도 ‘이/가’인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선생님: 주어와 보어는 문장을 구성하며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 안에서 해당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낸다. ㉡반면, 보어는 문장에서 주어를 제외하고, 서술어 ‘되다, 아니다’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서술어와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해. ㉢그리고 주어와 보어에 항상 조사 ‘이/가’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사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 그럼 각각의 예를 살펴볼까?

	유형	예문	설명
①	㉠	저기에 우체국이 있다.	‘우체국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저기’가 주어이다.
②	㉡	지수만 반장이 되었다.	서술어 ‘되다’가 사용되었으며, ‘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수만’이 보어이다.
③	㉢	나는 대학생이 되고 싶다.	서술어에 ‘되다’가 포함되었으므로 ‘대학생’이 보어이다.
④	㉣	동생이 책을 안 읽는다.	서술어에 ‘아니다’가 포함되었으므로 ‘책을’이 보어이며, 보어에 ‘이/가’가 아닌 ‘을’이 사용된 예이다.
⑤	㉤	부모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께서’는 주어를 표시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부모님’은 주어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 [정답/모범답안]

3

#### [해설]

##### 문장 성분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어는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와 같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으로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 ‘되고 싶다’가 주어 ‘나는’ 외에 필수적으로 ‘대학생’을 요구하며, ‘대학생’이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대학생’은 보어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문장의 서술어는 ‘있다’이며 이때 주어는 ‘우체국’이다. ‘우체국이 저기에 있다.’로 바꾸어도 의미가 같다.
- ② 이 문장에서 ‘반장이 되었다’의 주어는 ‘지수만’이며, ‘되었다’의 보어는 ‘반장’으로 분석할 수 있다.
- ④ 이 문장의 서술어는 ‘읽는다’로, ‘책을’은 보어가 아닌 목적어이다.
- ⑤ 이 문장에서 ‘께서’는 주어를 높이는 조사이다. ‘부모님께서’가 문장의 주어이다.

## #6. 문장의 형태, 의문문, 부정문

### [문장의 형태 패턴 파악]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패턴
홀문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문장 : 주어도 1개, 서술어도 1개</li> <li>- 겹문장 : 주어 또는 서술어가 2개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은 주어와 상관없이 서술어가 2개 이상임.</li> <li>· 서술절이 안겨있는 문장만 서술어가 1개임. 주어는 2개.</li> </ul> </li> </ul>
겹문장	안은-안긴문장	<p>[안은-안긴 문장에서 안긴문장 절의 종류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먼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높을 찾자! (용언, 서술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높이가 명사형태(-음, -기)면 명사절!</li> <li>·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절!</li> <li>·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절!</li> <li>· 사람말을 인용했으면 인용절!</li> </ul> </li> <li>- 서술절은 외워라! ‘코끼리가 코가 길다’ 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술어가 ‘-되다/-아니다’ 인 경우만 예외 (주어보어의 구조이므로)</li> </ul> </li> </ul>
	이어진문장	<p>[이어진 문장의 종류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i>and, but, o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 :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어미</li> </ul> </li> <li>-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외 나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 :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어미</li> </ul> </li> </ul>

# [꼭 정리해야 할 EBS문항]

## [문제1]

<보기>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ㄱ. 나는 찾아온 손님들이 빨리 나가기를 기다렸다.
- ㄴ. 언니가 찍은 사진은 구도가 정말 멋졌다.
- ㄷ. 진달래가 빛깔이 곱게 피었다.
- ㄹ. 책상 위의 책은 표지가 검은색이다.
- ㅁ. 그가 이름을 숨긴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① ㄱ에서는 ㅁ과 달리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ㄱ에는 주어, ㄴ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③ ㄴ과 ㄹ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ㄷ과 ㄹ에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ㄱ, ㄴ, ㅁ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 [유형 이해]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문장 성분의 종류와 기능,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장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형 공략]

- ① <보기> 문장에서 안긴문장, 안은문장 및 문장 성분을 확인한다.
- ② <보기> 문장과 선지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 [정답 풀이]

④ ㄷ에는 '빛깔이 곱다.'라는 문장이 '-게'의 부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부사절로 안겨 있지만, ㄹ에 사용된 '표지가 검은색이다.'라는 안긴문장은 서술절이다. 따라서 ㄷ과 ㄹ 모두에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ㄱ은 '찾아온 손님들이 빨리 나가다.'라는 문장이 '-기'라는 명사형 어미에 의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이때 명사절은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로 보아, 문장에서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다. ㅁ은 '그가 이름을 숨긴 기부자이다.'라는 문장이 명사형 어미 '-ㅁ'에 의해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인데, 이때 명사절은 '이'라는 주격 조사로 보아,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
- ② ㄱ에는 안긴문장이 두 개 있다. 관형사절로 안긴 문장을 풀어 쓰면 '(손님들이) 찾아오다.'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찾아온 손님들이 빨리 나가다.'가 명사절로 안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ㄴ의 관형사절인 '언니가 찍은'을 문장으로 써 보면, '언니가 (사진을) 찍다.'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ㄱ에는 주어, ㄴ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ㄴ은 주어인 '사진은'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구도가 정말 멋졌다.'라는 문장을 서술절로 안고 있다. ㄹ은 주어인 '책은'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표지가 검은색이다.'라는 문장을 서술절로 안고 있다. 따라서 ㄴ과 ㄹ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ㄱ의 '찾아온은' ('손님들이) 찾아오다.'라는 문장이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 체언인 '손님들'을 수식하는 관형사절로 쓰인 것이다. ㄴ의 '언니가 찍은'은 '언니가 (사진을) 찍다.'라는 문장이 목적어가 생략된 형태로, 체언인 '사진'을 수식하는 관형사절로 사용되고 있다. ㅁ의 '이름을 숨긴'은 '(기부자가) 이름을 숨기다.'라는 문장이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 체언인 '기부자'를 수식하는 관형사절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ㄱ, ㄴ, ㅁ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2]**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보기>의 ㉠과 ㉡의 의미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시간적으로 앞섬’, ‘배경 상황’, ‘목적/의도’, ‘조건/가정’, ‘이유/원인’, ‘양보’, ‘동시 상황’ 등의 일정한 의미적 역할을 한다. 예컨대 ‘-(으)면’은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조건/가정’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예) ㉠길이 막힐 것 같으면 ㉡지하철로 갈 거예요.

- ㉠ 배가 고프니까 우리 밥부터 먹자.
- ㉡ 동생은 음악을 들으면서 숙제를 해.
- ㉢ 일출봉에 해가 뜨거든 날 불러 주오.
- ㉣ 큰언니는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다.
- ㉤ 길을 가는데 아주 옛 친구를 만났어요.

**[정답/오범답안]**

3

**[해설]**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거든’은 ‘-(으)면’과 마찬가지로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조건/가정’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으)니까’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이유/원인’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 ㉡ ‘-(으)면서’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동시 상황’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 ㉣ ‘-(으)려고’는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목적/의도’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 ㉤ ‘-는데’는 앞 절이 뒤 절의 내용을 말하기 위한 ‘배경 상황’의 의미임을 나타낸다.

**[문제3]**

<보기>의 ㉠~㉥을 A~C로 분류할 때,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 ㉠ 눈앞에 드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다.
- ㉡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 ㉢ 그대가 항상 곁에 있음에 내가 산다오.
- ㉣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 우리는 날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 A: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 B: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 C: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A	B	C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 ① ①번
- ② ②번
- ③ ③번
- ④ ④번
- ⑤ ⑤번

**[정답/모범답안]**

3

**[해설]**

**안은문장**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드넓은’이 ‘벌판’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므로 B에 해당한다. 이 경우 관형사절 속의 주어는 꾸밈을 받는 ‘벌판’과 일치하므로 생략되었다.
- ㉡: ‘한국에서 오래 살기’가 명사절로 안겨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 명사절 속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 대상인 ‘저’와 일치하므로 생략되었다.
- ㉢: ‘그대가 항상 곁에 있음’이 명사절로 안겨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 ㉣: ‘민호가 어제 결혼했다는’이 ‘소식’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 ㉤: ‘날이 새도록’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쓰였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이고 안긴절인 부사절의 주어는 ‘날이’이다.

# #7. 사동, 피동, 시제, 높임

## [사동, 피동, 시제, 높임의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사동에서 기억할 패턴	<p>[사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형 :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li> <li>- 장형 : -하게 하다</li> </ul>	<p>[사동에서 유의할 패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동문의 중의성 : 직접사동 vs 간접사동</li> <li>- 신체일부 표현 유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머리를 숙였다.</li> </ul> </li> </ul>		
피동에서 기억할 패턴	<p>[피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형 : 접사 이, 히, 리, 기, 되</li> <li>- 장형 : -어지다</li> </ul>	<p>[사동에서 유의할 패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피동 : 단형피동과 장형피동의 결합 형태</li> <li>- 사동접사 + 장형피동은 이중피동이 아님</li> </ul>		
시제에서 기억할 패턴	<p>[절대시제, 상대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시제 : 발화시를 기준으로 판단</li> <li>- 상대시제 : 사건시를 기준으로 판단</li> <li>* 발화시, 사건시 개념 알아두기</li> </ul>	<p>[시제를 나타내는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어말어미 사용</li> <li>- 관형사형 전성어미 사용</li> <li>- 시간부사어 사용</li> </ul>		
높임에서 기억할 패턴	높임의 종류	주요 출제 패턴		중세국어
	주체높임	주어	선어말어미, 조사, 특수어휘	선어말 어미 有
	- 간접높임	높임대상의 소유물	선어말어미만 사용	
	객체높임	목적어, 부사어	조사, 특수어휘	선어말 어미 有
	상대높임	상대방(청자)	종결어미, 보조사 -요 (저, 말씀)	선어말 어미 有

# [꼭 정리해야 할 EBS문항]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피동은 주어가 주체적인 의지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하여 당하는 일을 말하며, 피동문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피동사가 서술어로 오는 문장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동문에는 서술어인 피동사, 문장의 주체, 그리고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남의 힘'이 모두 드러나기 마련이다. ㉠피동사, 문장의 주체, '남의 힘'이 모두 드러난 피동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 1 ) ㄱ.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피동문)
- 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능동문)

(1ㄱ)은 주어인 '도둑', 피동사인 '잡히다'와 도둑이 잡히게 한 '경찰'이 모두 분명하게 드러나는 피동문이다. 한편, 문법적으로 피동문을 파악할 때에는 대응되는 능동문(1ㄴ)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피동문에서의 '남의 힘'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능동문에서는 주어가 된다. 또한 피동문의 주어는 능동문에서는 목적어가 되며, 피동사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하기 이전의 상태인 동사로 전환된다. 즉, (1ㄱ)은 문법적으로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하는 피동문이다.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나는데, 이때 부사어가 생략되는지 혹은 실현되지 않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ㄱ)은 '도둑이 잡혔다.'로 쓸 수도 있지만 생략된 부사어를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능동문 '나는 전화번호를 바꾸었어요.'를 피동문으로 바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나에게 바뀌었다.'로 나타낼 수 없다. '전화번호가 나에 의해 바뀌었어요.'도 어색하다. 주어인 '나'가 전화번호를 바꾼 것이 분명하여도 피동문에서는 '나'가 실현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가 가장 자연스럽다.

또한 ㉡대응되는 능동문이 아예 없는 특수한 피동문도 존재한다. 능동사 '풀다'의 피동사는 '풀리다'이므로 능동문 '경찰은 의심을 풀었다.'에 대응하는 피동문은, 비록 부사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의심이풀렸다.'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날씨가 풀렸다.'에 대응하는 능동문은 아예 없다. '날씨를 푸'는 상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문제1]

윗글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동생의 꿈이 이루어졌다.
- ② ㉠: 나는 바닥에 미끄러졌다.
- ③ ㉡: 그는 수상자로 뽑혔다.
- ④ ㉡: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 ⑤ ㉡: 산 위에 달이 걸렸다.

### [정답/모범답안]

5

### [해설]

#### 피동 표현

####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달이 걸렸다.'는 대응되는 능동문 '달을 걸었다.'를 아예 설정할 수 없으므로 ㉡의 적절한 예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문장은 피동문이지만,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남의 힘'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② '미끄러지다'는 피동사가 아니며, 주체를 움직이게 하는 '남의 힘'도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누군가가) 그를 수상자로 뽑았다.'를 대응하는 능동문으로 설정할 수 있다.
- ④ '(누군가가)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를 대응하는 능동문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제2]**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동생의 방문이 열렸다.
- ㉡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 ㉢ 연우가 내 이름을 불렀다.
- ㉣ 모둠별로 일을 나누지 않았다.
- ㉤ 버스 안에서 지호의 발이 밟혔다.

- ① ㉠: 대응하는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나며, 피동문의 부사어는 생략이 불가능한 예이다.
- ② ㉡: 대응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나타나며, 피동문의 주어는 생략이 불가능한 예이다.
- ③ ㉢: 대응하는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나며, 능동문의 부사어는 생략이 가능한 예이다.
- ④ ㉣: 대응하는 피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목적어로 나타나며, 능동문의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한 예이다.
- ⑤ ㉤: 대응하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목적어로 나타나며, 능동문의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한 예이다.

**[정답/모범답안]**

2

**[해설]**

**피동 표현**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의 대응 능동문은 ‘(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이며 목적어인 ‘그 사실’이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났다. ‘\*믿기지 않는다.’처럼 주어 ‘그 사실이’가 생략된 문장은 불가능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대응 능동문은 ‘(누군가가) 동생의 방문을 열었다.’이다. 능동문의 주어 ‘누군가가’는 해당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능동문의 주어 ‘누군가가’를 피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낸다면 ‘누군가에 의해 동생의 방문이 열렸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문장에서 ‘누군가에 의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생략이 가능한 예이다.

③ ㉢의 대응 피동문은 ‘내 이름이 연우에 의해 불렀다.’이며 피동문의 주어 ‘내 이름이’가 능동문의 부사어가 아닌 목적어로 나타난다.

④ ㉣의 대응 피동문은 ‘모둠별로 일이 나뉘지 않았다.’이며 피동문의 주어 ‘일이’가 능동문의 목적어로 나타나며, 생략이 불가능하다. ‘\*모둠별로 나누지 않았다.’는 비문으로, 무엇을 나누지 않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하다.

⑤ ㉤의 대응 능동문은 ‘(누군가가) 버스 안에서 지호의 발을 밟았다.’이며 능동문의 목적어인 ‘발’이 생략될 수 없다.

**[문제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아버지는 할머니께 진지를 차려 드리셨다.
- ㉡ 선생님은 책을 읽고 계셨다.
- ㉢ 할아버지께서는 책이 많으시다.

- ① ㉠은 문장의 부사어를 통해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있다’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 ③ ㉢에는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된 말을 높이는 간접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 ④ ㉠, ㉡은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 ⑤ ㉠, ㉢은 모두 선어말 어미 ‘-(으)시’가 높임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정답/모범답안]**

2

**[해설]**

**높임 표현**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서 사용된 ‘있다’의 높임 표현인 ‘계시다’는 주체인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부사어는 ‘할머니께’로, 지시하는 대상 ‘할머니’를 높임의 부사격 조사를 활용하여 높이고 있다.
- ③ ㉢의 ‘많으시다’는 ‘할아버지’의 소유물인 ‘책’을 높이고 있으므로 간접 높임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에서는 ‘진지’, ‘드리다’, ㉡에서는 ‘계시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다.
- ⑤ ㉠, ㉢의 ‘드리셨다’, ‘많으시다’에는 모두 선어말 어미 ‘-(으)시’가 사용되었다.

# #8. 중세국어

## [제자원리의 출제패턴]

### 1. 초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상형)	가획자 (가획)	병서자	이체자 (이체)
어금닛소리	ㄱ	ㅋ	ㄲ	ㅇ
혓소리	ㄴ	ㄷ, ㅌ	ㄸ	ㄹ
입술소리	ㅁ	ㅂ, ㅃ	ㅄ	
잇소리	ㅅ	ㅈ, ㅊ	ㅉ	ㅊ
목소리	ㅇ	ㅅ, ㅆ	ㅈ	

- 병서자 : 나란히 쓴 글자
  - \* 각자 병서 : 된소리(쌍자음)
  - \* 합용 병서 : 다른 자음끼리 결합 (ㅅㅈ, ㅅㅊ, ㅅㅉ, ㅈㅉ 등)

### 2. 중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초출자(기본+기본)	재출자(초출+   )
天(양성 모음)	ㆍ	ㅏ, ㅑ	ㅓ, ㅕ
地(음성 모음)	ㅡ	ㅓ, ㅕ	ㅗ, ㅛ
人(중성 모음)	ㅣ	ㅗ, ㅛ	ㅜ, ㅠ

### 3. 중성의 제자 원리

- 중성부용초성 : 초성을 다시 중성에 사용함.
  - 8중성, 7중성법을 거쳐 현재는 중성부용초성

# [중세국어의 특징 관련 출제패턴]

## 1. 초성의 제자 원리

- ①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모음
- ② 어두 자음군 표기 **예** ㅼ들(15C)>똥을, ㅼ메(15C)>쌈에
- ③ 모음 조화 철저. **예** ㅅ조롱(15C)>자를
- ④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ㅼ디(15C)>펴지, 고태 > 고쳐
- ⑤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스물(15C)>스물, 무지개 > 무지개
- ⑥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예** 니르고져(15C)>이르고자
- ⑦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
- ⑧ 현대 국어와 다른 조사 사용 → 현대국어 격조사 파악으로 승부를 본다.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 사용	<b>예</b> 등국에 달아(15C)> 중국과 달라
'동등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비교격 조사 '와로' 사용	<b>예</b> 文문字종와로(15C)> 문자와는
주격 조사가 자음+ '이' / 모음+ 'ㅣ' / '∅'	<b>예</b> ㅎ·배(15C)> 할 바가, ㅍ > 산이, 새미 > 샘이
목적격 조사 을/를, 올/를	<b>예</b> 我后를 / 天下를

- ⑨ 현대 국어와 다른 어휘의 의미

의미 변화	<b>예</b> 어린: 어리석은(15C) > 나이가 적은, 어엿비: 가엿게(15C) > 불쌍하게, 예쁘게
	<b>예</b> 높: 사람(15C) >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b>예</b> 영감: 당상관 이상의 높은 벼슬하는 사람 >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는 말

- ⑩ 이어 적기(연철) 원칙.

이어 적기(연철)	끊어 적기(분철)	거듭 적기(중철)
말쌈미	말쌘미	말쌘미

- ⑪ 받침 표기

중성부용초성	8 중성법	7 중성법	중성부용초성
모든 자음을 중성에 사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모든 자음을 중성에 사용
꺄	꺄	꺄	꺄

- ⑪ ㅎ 중성체언
- ⑫ ㄱ 중성체언
- ⑬ 높임법의 변화
  -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
- ⑭ 병의 변화 **예** 새빙->새우, 더빙->더워
- ⑮ 명사형 어미 '움/옴' **예** 쑤메 > 쓰+움+에 vs 명사파생접미사 '-기'



# [꼭 정리해야 할 EBS문항]

## [문제1]

<학습 내용>을 참고하여 <학습 활동>의 ㉠~㉥를 작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습 내용>

훈민정음 창제 이전, 우리 선조들은 ㉠한자의 뜻을 빌려 적는 방법과 ㉡한자의 소리를 빌려 적는 방법을 활용하여 국어를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의 이름을 ‘永同’ 또는 ‘吉同’으로 표기한 것이다.

한자	永		吉	同
뜻	길다		좋다	같다
소리	영		길	동

### <학습 활동>

다음의 ‘바꿀 말’을 ‘한자’를 활용하여 친구들과의 ‘암호’로 바꾸었을 때, 각각의 암호가 ㉠, ㉡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한 것인지를 ㉠~㉥에 순서대로 적어 보자.

바꿀 말	한자	암호	방법
둘이	二: 둘 이	二二	㉠
나가자	拿: 붙잡다 나, 行: 가다 행, 尺: 자 척	拿行尺	㉡
여기	如: 같다 여, 基: 터 기	如基	㉢
있어	有: 있다 유, 魚: 고기 어	有魚	㉣
제발	第: 차례 제, 足: 발 족	第足	㉤

- ① ㉠: ㉠, ㉡
- ② ㉡: ㉡, ㉠, ㉠
- ③ ㉢: ㉡, ㉡
- ④ ㉣: ㉠, ㉠
- ⑤ ㉤: ㉡, ㉠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 표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 ‘있’은 ‘有’의 뜻, ‘어’는 ‘魚’의 소리를 빌린 것이다. 따라서 ㉠, ㉡이 되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둘’은 ‘二’의 뜻, ‘이’는 ‘二’의 소리를 빌린 것이다.
- ② ㉡: ‘나’는 ‘拿’의 소리, ‘가’는 ‘行’의 뜻, ‘자’는 ‘尺’의 뜻을 빌린 것이다.
- ③ ㉢: ‘여’는 ‘如’의 소리, ‘기’는 ‘基’의 소리를 빌린 것이다.
- ⑤ ㉤: ‘제’는 ‘第’의 소리, ‘발’은 ‘足’의 뜻을 빌린 것이다.

**[문제]**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그제사 善容(선용)이 ㅁㅅㅁ 여러 ㉠**ㅍ(왕)의** 슬보되 ㉡**내 ㅍ(왕) 말씀** ㉢**듣줍고사** 내 ㅁㅅㅁ ㉣**씨들**과이  
다 生老病死(생로병사) | 眞實(진실)로 슬흔 이리로소이...다 나를 出家(출가)하야 ㉤**道理(도리)** 빅호게 ㅎ쇼셔  
ㅍ(왕)이 깃거 그리 ㅎ라 ㅎ야늘

- 『석보상절』 권 24

**<현대어 풀이>**

그제야 선용이 마음이 열려 왕께 아뢰기를 “내가 왕 말씀 듣고서야 내 마음이 깨달았습니다.  
생로병사가 진실로 슬픈 일입니다. 나를 출가하게 하여 도리 배우게 하십시오.” 왕이 기뻐 “그  
리 하라.” 하거늘

- ① ㉠: 높임을 표현하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있다.
- ②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가 쓰이고 있다.
- ③ ㉢: 문장의 주어에 대한 높임이 나타나 있다.
- ④ ㉣: 대화의 청자에 대한 높임이 나타나 있다.
- ⑤ ㉤: 서술어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정답/모범답안]**

3

**[해설]**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높이는 대상은 주어인 ‘내’가 아니라 목적어인 ‘ㅍ 말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의’는 높임을 나타내는 ‘께’에 해당하며 부사어에 쓰이고 있다.

② ㉡은 ‘나 + |’로, 모음으로 끝난 대명사 뒤에 결합한 주격 조사 ‘|’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은 ‘깨달았습니다’로 풀이되므로 듣는 이(여기서는 ‘왕’)를 높이고 있다.

⑤ ㉤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도리(를) 배우게 하십시오’로 풀이되므로 ㉤은 목적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

옛말 사전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 좋다 [好] [형] 좋다. ㉠ 날도 도쿄 서러 조용하여(날도 좋고 서로 조용하여), 도쿄나 곳거나 아름답거나 아름답디 아니거나(좋거나 곳거나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 ㉡ : 좋다 [好] [동] 좋아지다. 병이 낫다. ㉡ 그 아드릭 病(병)이 즉재 도쿄늘(그 아들의 병이 즉시 좋아지거늘), 현 우희 불로되 도토록 하라((상처로 인해) 현 위에 바르되 좋아질 때까지 하라)

- ㉢: ㉠은 상태의 변화를, ㉡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 ㉣: ㉠과 ㉡은 형태와 성조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품사로 분류되고 있다.
- ㉤: ㉠과 ㉡의 활용형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정답/모범답안]**

2

**[해설]**

중세 국어의 이해와 근대 국어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과 ㉡은 단어의 형태가 동일하며 방점 ‘:’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성조도 동일하지만, ㉠은 형용사, ㉡은 동사로 분류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은 좋은 상태를 나타내고, ㉡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의 활용형인 ‘도쿄’(동- + -고), ‘도크나’(동- + -거나), ㉡의 활용형인 ‘도크늘’(동- + -거늘), ‘도토록’(동- + -도록)에는 모두 격음화(거센 소리되기)가 반영되어 있다.

[문제2]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팔구월에 늙자닌 가지를 ㉠꼭지재 한 치 남죽식 칼로 그쳐 밀을 녹여 그출 ㉡불라 한열이 적듯흔 더 두고 쓰라 쏘 가지를 깎흔 광주리에 지를 혼 불만 썰고 가지 혼 불 녀코 쏘 지 썰고 쏘 가지 ㉢녀허 ㉣그르시 차거든 두터이 퍼 너 업는 더 두고 겨울헤 쓰면 ㉤도흐니라

- 『음식디미방』 (1670년경)

<현대어 풀이>

팔구월에 늙지 않은 가지를 꼭지재 한 치 남짓씩 칼로 끊어 밀랍을 녹여 끝에 발라 한열이 적당한 데 두고 쓰라. 또 가지를 깊은 광주리에 재를 한 겹만 깔고, 가지 한 겹을 넣고 또 재 깔고 또 가지 넣어, 그릇이 차 거든 두껍게 덮어 연기 없는 데 두고 겨울에 쓰면 좋으니라.

- ① ㉠: 현대 국어와 달리, 어두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② ㉡: 현대 국어와 달리, 첫 번째 음절에 ‘·’가 나타나고 있다.
- ③ ㉢: 현대 국어와 달리, 첫 번째 음절에서 ‘ㄴ’과 반모음 ‘j’가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
- ④ ㉣: 현대 국어와 달리, 이어 적기가 나타나고 있다.
- ⑤ ㉤: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적용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정답/모범답안]

5

[해설]

근대 국어 자료 탐구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도 흐니라’는 구개음화의 발생 이전 형태이며, ‘좋으니라’는 구개음화의 발생 이후의 형태이다. ‘똥-’의 ‘ㄷ’이 반모음 ‘j’ 앞에서 경구개음 ‘ㄲ’으로 변화한 후, 단모음화로 인하여 ‘교’가 ‘고’로 변화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대 국어의 ‘꼭지’에서는 어두 위치에 경음이 발견되지만, 근대 국어 자료의 ‘꼭지’에서는 어두 위치에 경음이 쓰이지 않고 있다.
- ② 현대 국어에서는 ‘·’가 사라지고 없지만, 근대 국어 자료에서는 ‘·’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 ③ 현대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음절에서 ‘ㄴ’과 반모음 ‘j’가 나란히 나타나지 않지만, 근대 국어 자료에서는 ‘녀’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④ 현대 국어의 ‘그릇이’는 체언과 조사의 경계를 밝혀 적는 끊어적기를 적용한 것이지만, 근대 국어 자료의 ‘그르시’는 이어 적기를 보이고 있다.

**[문제3]**

<보기>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너는 ㉠高麗(고려)人 사르미어시니 쏘 엇디 漢語(한어) 닐오미 잘 ㉡흐노노  
 내 ㉢漢兒人(한아인)의손되 글 빅호니 이런 전츠로 저그나 漢語(한어) 아노라  
 네 뒤손되 글 ㉣빅혼다  
 내 되혹당의셔 글 빅호라 (중략)  
 네 빅실 므슴 이력흐는다  
 빅실 이른 새배 니러 혹당의 가 스승님께 글 ㉤듣좁고 혹당의 노하든 지빅와 밥 머기 못고  
 -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

**<현대어 풀이>**

너는 고려의 사람인데 어떻게 중국어를 잘하는가?  
 나는 중국인한테 글을 배웠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이나마 중국어를 안다.  
 너는 누구한테 글을 배웠느냐?  
 나는 중국 학당에서 글을 배웠다. (중략)  
 너는 매일 무슨 공부를 하느냐?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학당에 가서 스승님께 글을 배우고, 학당이 끝나면 집에 와서 밥 먹기를 마치고

- ① ㉠: 무정 명사에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가 쓰였다.
- ② ㉡: 판정 의문문에 결합하는 종결 어미가 쓰였다.
- ③ ㉢: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조사가 쓰였다.
- ④ ㉣: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 결합하는 어미가 쓰였다.
- ⑤ ㉤: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

**[정답/모범답안]**

2

**[해설]**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흐노노’는 상대에게 ‘예’ 또는 ‘아니요’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 아니라, ‘엇디’라는 의문 부사를 포함한 설명 의문문에 종결 어미 ‘노’가 쓰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고려’는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무정 명사이므로 관형격 조사 ‘시’이 쓰였다.
- ③ ‘의손되’는 ‘한테(서)’의 뜻으로 부사격 조사이다.
- ④ ‘-다’는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 쓰이는 어미이다.
- ⑤ 부사어 ‘스승님께’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 ‘-좁’이 쓰였다.

**[문제4]**

〈보기 1〉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의 ㉠~㉣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현대 국어에서 발견되는 몇몇 특이한 말들을 중세 국어에 관한 정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좁쌀’에 나타나는 ‘ㅂ’은 ‘쌀’의 중세 국어 형태인 ‘쌀’의 어두 자음군 ‘ㅃ’으로부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컷’의 ‘ㄱ’은 ‘수’가 중세 국어에서 ‘ㅎ’을 맨 마지막 음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이었기 때문에 뒤의 ‘ㄱ’과 축약된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내가’는 중세 국어의 대명사 ‘나’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에 훗날 새로이 등장한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명사 ‘너’를 포함하고 있는 주어 ‘네가’의 형태 역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보 기 〉

- ㉠ 현대 국어 ‘햅쌀’의 ‘ㅂ’은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과 연관되는군.
- ㉡ 현대 국어 ‘수탉’의 ‘ㅌ’은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과 연관되는군.
- ㉢ 현대 국어 ‘내가’와 ‘네가’는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 ‘이’와 연관되는군.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정답/모범답안]**

4

**[해설]**

**문법의 변천**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햅쌀’에 포함되어 있는 ‘ㅂ’은 〈보기 1〉의 ‘좁쌀’과 마찬가지로 ‘쌀’의 어두 자음군 ‘ㅃ’으로부터의 흔적이 남은 것이다.
- ㉢ 〈보기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내가’는 대명사 ‘나’에, ‘네가’는 대명사 ‘너’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에 훗날 등장한 주격 조사 ‘가’가 붙은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수탉’은 〈보기 1〉의 ‘수컷’과 마찬가지로 앞말이 ‘ㅎ’을 맨 마지막 음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 ‘ㅎ’과 뒷말의 ‘ㄷ’이 축약된 ‘ㅌ’이 남아 있는 것이다.

**[문제5]**

〈보기 1〉의 ㉠과 ㉡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골라 묶은 것은?

〈 보 기 1 〉

중세 국어의 조사는 앞말이 지니는 소리의 특성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형태가 같은 조사라도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잘 따져 봐야 한다.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따질 때에는 앞에 오는 체언의 의미상 특징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와 ‘의’는 관형격 조사 또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앞말의 끝에 오는 모음이 양성인 경우에는 ‘의’, 음성인 경우에는 ‘의’가 쓰인다.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앞말이 존칭이 아닌 평칭의 유정 체언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앞에 신체, 방위, 처소, 시간 등을 뜻하는 무정 체언이 와야 한다.

〈 보 기 2 〉

- ㉠ 치운 뉘해서 바막 우눗다 (추운 산에서 밤에 우는구나)
- ㉡ 늑막 뜯 거스디 아니<sup>ㅎ</sup>거든 (남의 뜻 거스르지 아니하거든)
- ㉢ 千歲(천세) 우희 미리 定(정)<sup>ㅎ</sup>산 (천 년 전에 미리 정하신)
- ㉣ 父母(부모) | 아들의 말을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어)
- ㉤ 世尊(세존)이 多子塔(다자탑) 알<sup>ㅍ</sup> 가시어 (세존이 다자탑 앞에 가시어)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정답/모범답안]**

1

**[해설]**

**[유형 이해]**

중세 국어의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다. 〈보기 1〉에서 중세 국어의 문법에 대해 설명하고, 〈보기 2〉에서 〈보기 1〉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연결하거나 제시된 기호에 해당하는 예만 골라내게 함으로써 중세 국어의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정답 풀이]**

① ㉠의 ‘바막’은 체언 ‘밤’에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밤’은 모음이 양성인 말이고, 시간을 나타내는 무정 체언으로 ‘의’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의 ‘알<sup>ㅍ</sup>’은 체언 ‘앞’에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앞’은 모음이 양성인 말이고, 방위를 나타내는 무정 체언으로 ‘의’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의 ‘늑막’은 체언 ‘늑’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늑’은 모음이 양성인 말로 뒤에 오는 체언 ‘뜯’을 수식하기 위해 ‘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의 ‘우희’는 체언 ‘우<sup>ㅎ</sup>’에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우<sup>ㅎ</sup>’은 모음이 음성인 말이고, 방위를 나타내는 무정 체언으로 ‘의’는 부사격 조사이다.

㉤의 ‘아들<sup>의</sup>’은 체언 ‘아들’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때 ‘아들’은 끝에 오는 모음이 양성인 말로 뒤에 오는 체언 ‘말’을 수식하기 위해 ‘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의’는 관형격 조사이다.

**[문제6]**

〈보기〉의 ㉠~㉥에서 밑줄 친 말을 같은 품사끼리 짝지은 것은?

〈 보 기 〉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는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데, 다음의 ‘므슴’과 ‘새’는 이러한 예이다.

- ㉠ 나<sup>ㄴ</sup>ㅁ<sup>ㅁ</sup>닐 다시 므슴 <sup>ㅍ</sup>려리오  
(남은 일 다시 어찌 펴겠는가)
- ㉡ 그<sup>ㄴ</sup>되 몆友(악우) <sup>ㅍ</sup>러 므슴 <sup>ㅎ</sup>따  
(그대 나쁜 친구를 불러 무엇 하겠는가)
- ㉢ 므슴 물로 <sup>ㅍ</sup>적 시스시<sup>ㄴ</sup>는가  
(무슨 물로 때를 씻으시는가)
- ㉣ 이 나<sup>ㄴ</sup>래 새를 맛보고  
(이날에 새것을 맛보고)
- ㉤ 새 기<sup>ㅁ</sup>슬 一定(일정) <sup>ㅎ</sup>엿도다  
(새 보금자리를 정하였도다)
- ㉥ 새 出家(출가) <sup>ㅎ</sup> 사<sup>ㄴ</sup>르미니  
(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정답/모범답안]**

4

**[해설]**

품사의 분류 기준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므슴’은 부사로, ㉡의 ‘므슴’은 대명사로, ㉢의 ‘므슴’은 관형사로 쓰였다. ㉣의 ‘새’는 명사로, ㉤의 ‘새’는 관형사로, ㉥의 ‘새’는 부사로 쓰였다. 따라서 ㉢과 ㉤이 같은 품사인 관형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문제기]**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1 〉

15세기 한국어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쓰이는 양상은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먼저 15세기에는 ‘이다’라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에 ‘-다, -다가, -더-, -도-’처럼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이라, 이라가, 이라-, 이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고, -거-’처럼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이오, 이어-’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선어말 어미로 쓰이는 ‘-오-’가 ‘이’에 결합하면 ‘-오-’가 아닌 ‘-로-’가 나타났다.

이러한 서술격 조사는 어떠한 앞말에 결합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리 나타났다. ‘이라’를 예로 들면, 자음 뒤에서는 ‘사랴미라(사랴+이라, 사람이다)’처럼 ‘이라’로, ‘이’나 ‘ㅣ’ 모음 뒤에서는 ‘소리라(소리+라, 소리이다)’처럼 ‘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 뒤에서는 ‘부테라(부터+ㅣ라, 부처이다)’처럼 ‘ㅣ라’로 나타났다.

〈 보 기 2 〉

無常 <sup>흔</sup> ㉠ (무상한 것이다)	[㉠의 형태소 분석] 것+이--+다
내 일후 <sup>은</sup> 甲 ㉡ (내 이름은 갑이니)	[㉡의 형태소 분석] 이--+오--+니
효 <sup>주</sup> ㉢ (효자이거니)	[㉢의 형태소 분석] 이--+거니
十八億 ㉣ (십팔억이었으니)	[㉣의 형태소 분석] 이--+더--+니
牛頭 <sup>는</sup> 쇠 머리 ㉤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의 형태소 분석] 이--+다

- ① ㉠ 거시다
- ② ㉡ 이로니
- ③ ㉢ 이어니
- ④ ㉣ 이더니
- ⑤ ㉤ 이라

**[정답/모범답안]**

2

**[해설]**

중세 국어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자음 뒤이기 때문에 ‘이’가 나타나고, ‘이’에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로니’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음 뒤이기 때문에 ‘이’가 나타나고, ‘이’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다’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라’로 나타나 ‘거시라’가 적절하다.
- ③ ‘이’나 ‘ㅣ’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에 해당하는 ‘ㅣ’ 뒤의 ‘이’는 ‘ㅣ’로 나타난다. 또한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거니’와 결합하기 때문에 ‘거’는 ‘어’로 나타난다. 따라서 ‘ㅣ어니’가 적절하다.
- ④ 자음 뒤이기 때문에 ‘이’가 나타나고, ‘이’에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더-’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러-’로 나타나 ‘이러니’가 적절하다.
- ⑤ 앞말이 모음 ‘ㅣ’로 끝나기 때문에 ‘이라’가 아닌 ‘랴’가 적절하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합성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어휘적 의미를 강하게 띠는 요소들이 결합하는 경우이다. 이때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우리말 문장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통사 구성 방식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합성어는 다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언의 관형사형(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전성 어미)+명사’로 구성된 ‘젊은 남자’가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임을 고려하면 ‘젊은이’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반면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결합한 ‘접칼’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일반적인 우리말 문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통사 구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슬비’ 같은 경우에도 홀로 쓰일 수 없는 어근인 ‘보슬’에 명사가 결합하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한편 용언의 경우에는 ‘용언의 연결형(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의 어간’으로 구성된 ‘입고 가다’가 일반적인 우리말의 통사 구성 방식임을 고려하면 ‘파고들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반면 연결 어미가 없이 용언 어간끼리 직접 결합하는 ‘뉘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이러한 구분은 중세 국어의 합성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 ‘뛰놀다’와 중세 국어 ‘뻘놀다’는 둘 다 연결 어미가 없이 용언의 어간끼리 직접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다만 ‘도랏다(좋고 싶다), 덕먹다(찍어 먹다)’ 같은 비통사적 합성어는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합성어로 쓰이지 않고 구 구성을 보인다. 한편 ㉠ 중세 국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구성으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통사적 합성어의 구성으로 쓰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문제8]**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새 신발’과 같이 관형사와 명사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어느새’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꽃 피다’와 같이 명사와 용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힘들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멀리 가다’와 같이 부사와 용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덜하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빠른 동물’과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뜯소문’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갈아 먹다’와 같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보살피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정답/모범답안]**

5

**[해설]**

단어의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살피다’는 연결 어미가 없이 어간 ‘보-’와 ‘살피-’가 직접 결합하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새’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꽃(이) 피다’처럼 체언과 용언으로 구성되는 것은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덜하다’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우리말 문장의 일반적인 통사 구성 방식이기 때문에 ‘뜯소문’은 통사적 합성어이다.

**[문제9]**

윗글의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세 국어 자료	현대어 풀이
먹고 ㉠슬지니	먹고 살찌니
다시 ㉡도라오디 아니호려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려
누 <sup>븐</sup> 남기 ㉢니러셔니이다	누운 나무가 일어섰습니다
것 <sup>바</sup> 시 득외야 ㉣빌머거 사니다가	거지가 되어 빌어먹으며 살아가다가
이 양 <sup>으</sup> 로 세 번 ㉤오르 <sup>느</sup> 리샤	이 모습으로 세 번 오르내리시어

- ① ㉠슬지니
- ② ㉡도라오디
- ③ ㉢니러셔니이다
- ④ ㉣빌머거
- ⑤ ㉤오르<sup>느</sup>리샤

**[정답/모범답안]**

4

**[해설]**

중세 국어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현대 국어의 ‘빌어먹으며’는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으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임에 비해, 중세 국어의 ‘빌머거’는 연결 어미가 없이 어간 ‘빌-’과 어간 ‘먹-’이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슬지니’와 ‘살찌니’는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② ‘도라오디’와 ‘돌아오지’는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니러셔니이다’와 ‘일어섰습니다’는 모두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오르<sup>느</sup>리샤’와 ‘오르내리시어’는 모두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9. 로마자 표기 & 외래어 표기

## [제자원리의 출제패턴]

### 1. 로마자 표기법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ㅚ	ㅜ	ㅠ
a	eo	o	u	eu	i	æ	e	œ	wi

#### 2. 이중 모음

ㅑ	ㅓ	ㅕ	ㅠ	ㅞ	ㅚ	ㅜ	ㅜ	ㅜ	ㅜ	ㅜ
ya	yeo	yo	yu	yæ	ye	wa	wæ	wo	we	wi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 2. 파찰음 3. 마찰음 4. 비음 5. 유음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j	jj	ch	s	ss	h	n	m	ng	r, l

[붙임 1] ‘ㄱ, ㄷ, ㅍ’ 은 모음 앞에서는 ‘g, d, b’ 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 로 적는다.

[붙임 2] ‘ㄹ’ 은 모음 앞에서는 ‘r’ 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 로 적는다.

단, ‘ㄹㄹ’ 은 ‘ll’ 로 적는다.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2. 외래어 표기법

#### • 외래어 표기의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꼭 정리해야 할 EBS문항]

### [문제1]

<보기>를 보고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외래어 표기법 제3항에서는 받침에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외래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이 7개의 자음들만 발음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book’은 ‘북’으로 표기할 수도 있으나 뒤에 조사 ‘이’, ‘을’ 등이 오면 ‘[부기],[부글]’로 발음되는 점을 반영하여 ‘북’이라고 적는다. 만약 ‘[부키]’, ‘[부클]’로 발음한다면 ‘북’으로 적었을 것이다. ‘racket’을 ‘라켓’으로 적지 않고, ‘라켄’으로 적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 ① ‘숍(shop)’의 받침 ‘ㅂ’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ㅍ’으로 발음된다.
- ② ‘캣(cat)’의 받침 ‘ㅅ’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ㅅ’으로 발음된다.
- ③ ‘킵(kick)’의 받침 ‘ㄱ’은 실제 발음에서는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다.
- ④ ‘톱(top)’의 받침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ㅂ’으로 발음된다.
- ⑤ ‘로봇(robot)’의 받침은 뒤에 어떤 조사가 와도 항상 ‘ㅅ’으로 발음된다.

#### [정답/모범답안]

4

#### [해설]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톱(top)’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을’ 등이 오면 ‘[토비]’, ‘[토블]’로 발음되는 점을 반영하여 ‘톱’이라고 적은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숍(shop)’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숍]’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캣(cat)’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캣]’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킵(kick)’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킵]’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⑤ ‘로봇(robot)’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로봇]’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외국어나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f’와 ‘p’가 변별되는 음운이어서 ‘file’과 ‘pile’의 발음을 구분하지만,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서는 이들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파일]로 발음되고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에 더해서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원어의 발음에 최대한 가깝게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외래어가 외국의 문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가 외래어 표기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국제 음성 기호와 그에 따른 한글 대조표를 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고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외래어 중에는 원어의 실제 발음과는 다른 발음으로 우리말 속에 자리 잡은 것들도 있는데, 이들의 관습적 사용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radio’의 영어 발음을 고려하면 ‘레이디오’로 적어야 하지만, 우리말에서 이미 ‘라디오’로 굳어져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라디오’로 적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의 문자 체계를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다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유음이 하나의 음운 ‘ㄹ’로만 존재하지만, 이를 로마자로 적을 때에는 ‘r’와 ‘l’로 구분하여 적는 식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모음 앞의 ‘ㄹ’은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의 ‘ㄹ’은 ‘l’로, ‘ㄹㄹ’은 ‘ll’로 적도록 규정한다.

앞서 살핀 외래어 표기법에서 유음 [l]을 한글로 표기하는 방식도 다소 특징적인데, 먼저 어말이나 자음 앞의 [l]은 받침 ‘ㄹ’로 적도록 한다. 또한 단어 중간의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m], [n]) 앞에 올 때에는 ‘ㄹㄹ’로 적도록 하며, 다만 비음([m], [n]) 뒤의 [l]은 모음 앞에 오더라도 ‘ㄹ’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2]

윗글과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1 >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중 일부

국제 음성 기호	자음		모음	
	한글		국제 음성 기호	한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s	ㅅ	스	o	오
p	ㅍ	ㅍ, 프	ʌ	어
t	ㅌ	ㅌ, 트	e	에
k	ㄱ	ㄱ, 트	ə	어
m	ㅁ	ㅁ	a	아
n	ㄴ	ㄴ	ɑ	아
g	ㄱ	그	i	이
dʒ	ㅈ	지		
r	ㄹ	르		
l	ㄹ, ㄹㄹ	ㄹ		

〈 보기 2 〉

	영어 철자	영어 발음*	외래어 표기
㉠	sponge	[spʌndʒ]	스펀지
㉡	rocket	[rʌkit]	로켓
㉢	color	[kʌlə(r)]	컬러
㉣	compass	[kʌmpəs]	컴퍼스
㉤	mania	[meiniə]	마니아

\*장단음 및 강세는 표시하지 않음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모범답안]

4

[해설]

외래어 표기법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 ‘로켓’과 ㉤ ‘마니아’는 영어 발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철자를 그대로 읽는 방식에 따라 외래어를 표기하고 있다. 원어의 실제 발음과 다른 발음이 우리말 속에 자리 잡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철자에 이끌려 ‘스폰지’로 잘못 적는 경우가 있지만, [ʌ] 발음에 따라 ‘스펀지’로 적는다.

㉢ 잘못 굳어져 ‘칼라’로 적는 경우가 있지만, [ʌ]와 [ə] 발음에 따라 ‘컬러’로 적는다.

㉣ 철자에 이끌려 ‘콤포스’로 잘못 적는 경우가 있지만, [ʌ]와 [ə] 발음에 따라 ‘컴퍼스’로 적는다.

**[문제3]**

윗글을 참고하여 외래어 및 로마자의 표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film[film]’을 한글로 표기할 때, ‘ㄹ’이 두 개 필요하다.
- ② ‘Henley[henli]’를 한글로 표기할 때, ‘ㄹ’이 두 개 필요하다.
- ③ ‘hotel[houtel]’을 한글로 표기할 때, ‘ㄹ’은 받침으로 적어야 한다.
- ④ ‘구리[구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 [ㄹ]은 ‘r’로 적어야 한다.
- ⑤ ‘대관령[대 : 괘령]’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l’이 두 개 필요하다.

**[정답/모범답안]**

2

**[해설]**

**외래어 표기법 및 로마자 표기법**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Henley[henli]’는 [l]이 비음 [n]과 모음 사이에 오기 때문에 ‘헨리’로 적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film[film]’은 단어 중간의 [l]이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m] 앞에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필름’으로 적어야 한다.
- ③ ‘hotel[houtel]’은 어말에 [l]이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호텔’로 적어야 한다.
- ④ ‘구리[구리]’는 모음 앞에 ‘ㄹ’이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Guri’로 적어야 한다.
- ⑤ ‘대관령[대 : 괘령]’은 유음화의 결과 ‘ㄹㄹ’로 발음되기 때문에 ‘Daegwallyeong’으로 적어야 한다.



**[문제4]**

<보기>의 '고유 명사'를 ㉠에 따라 표기할 때, ㉠~㉤를 적절하게 구분한 것은?

〈 보 기 〉

고유 명사	표준 발음	로마자 표기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
별내	[별래]	Byellae	㉠
독막	[동막]	Dongmak	㉡
울산	[울싼]	Ulsan	㉢
집현전	[지편전]	Jipheonjeon	㉣
학여울	[항녀울]	Hangnyeoul	㉤

반영                      미반영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정답/모범답안]**

2

**[해설]**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내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 ㉠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므로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 ㉡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 ㉢ 'ㅅ'이 'ㅆ'으로 바뀌는 경음화가 일어나지만, 경음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ㄴ'과 'ㅎ'이 'ㅍ'으로 축약되는 격음화가 일어나지만, 체언이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 'ㄴ'이 첨가되고 'ㄱ'이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